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 개발

지도교수 김 미 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김 현 지

2014年 8月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 개발

지도교수 김 미 예

김 현 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김현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영표 (인)
위 원 김영표 (인)
위 원 김미예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2014년 8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3
1) 사회적 체형불안	3
2) 타인평가 불안	3
3) 자기평가 불안	3
4) 의복관련 불안	3
5) 사회인지이론	4
6) 척도	4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사회적 체형불안 이론	5
1) 사회적 체형불안의 개념	5
2) 사회적 체형불안의 원인	5
3) 사회적 불안의 개념	6
4) 사회적 불안의 인지적 이론	6
5) 사회인지이론	7
2. 검사도구 제작	8
1) 검사개발 계획 수립	8
2) 문항개발	9
3) 예비조사 실시	10
4) 본조사 실시	10
3. 선행연구	11
III. 연구방법	13
1. 연구대상	13
2. 연구절차	13

1) 요인탐색 및 선정	13
2) 예비문항 개발	16
3) 본 검사지 개발	17
3. 자료분석	18
IV. 연구결과	20
1. 요인탐색 및 선정	20
1) 문헌연구	20
2) 개방형 설문	20
3) 심층면담	26
4) 전문가 회의	28
2. 예비문항 개발	29
1) 예비문항 작성	29
2) 예비문항 수정	29
3) 1차 예비조사	30
4) 2차 예비조사	36
3. 본 검사지 개발	42
1) 본조사	43
2) 타당도 검증	47
3) 신뢰도 검증	49
V. 논의	51
VI. 결론 및 제언	54
1. 결론	54
2. 제언	55
참고문헌	56
Abstract	62
부록	64

표목차

표 1. 1차 예비문항	31
표 2. 1차 예비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상관(r)	32
표 3. 1차 예비문항의 사전공통분추정치	33
표 4. 1차 예비문항의 고유치	34
표 5. 1차 예비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35
표 6. 1차 예비문항의 삭제문항	36
표 7. 2차 예비문항	37
표 8. 2차 예비문항전체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상관(r)	38
표 9. 2차 예비문항의 사전공통분추정치	39
표 10. 2차 예비문항의 고유치	39
표 11. 2차 예비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41
표 12. 2차 예비문항의 삭제문항	42
표 13.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	43
표 14.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사전공통분추정치	44
표 15.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고유치	44
표 16.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46
표 17. 3요인 모형의 모수추정치	47
표 18.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8
표 19. 검사와 재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재검사 신뢰도	50

그림목차

그림 1. 연구절차	14
그림 2. 사회적 체형불안 경험 상황	22
그림 3. 사회적 체형불안에 대한 정서적 반응	24
그림 4.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모형의 경로도	49

<국문초록>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 개발

김 현 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미 예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의식과 문화를 반영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경남, 전북, 제주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 1,03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855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먼저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을 통해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를 5요인 5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58개의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전문가회의를 거쳐 30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30개의 예비문항을 여대생 300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다시 22문항으로 문항을 삭제하였다. 5요인 22문항을 여대생 11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동일한 분석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요인 16문항인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를 완성하였다. 최종 완성된 16문항은 여대생 13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타당도 검증,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종 16문항 3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3요인을 '타인평가불안', '자기평가불안', 그리고 '의복관련 불안'으로 해석하였다.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6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3요인 모형이 자료와 모형의 적합지수 중 RMR과 RMSEA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모든 요인에서 신뢰계수 알파가 .72에서 .83으로 나타나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재검사 신뢰도 결과도 요인별로 상관계수값이 $r=.83\sim.86$ 의 범위로 나타나 검사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다른 성별이나 연령대에게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척도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 체형불안(social physique anxiety)이란 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는지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Hart, Leary & Rejeski, 1989). 사회적 체형불안은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과 그 맥을 같이하는데 사회인지이론이란 행동, 환경, 개인적 요인이 서로 연관되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이진오, 강상조, 박찬호, 2009; Bandura, 1986).

사회적 체형불안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주요 대상은 여자 대학생으로 알려져 있다(김종우, 2011; 정용민, 정상훈, 2011; 최봉순, 홍진표, 2000; Crawford & Eklund, 1994). 그 이유는 여대생들이 외모에 민감하고,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김인숙, 유현희, 한혜숙, 2002; 신현경 등, 2011; 황윤영, 2004). 사회적 체형불안을 경험하는 여대생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체중이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과다체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체중과 이상체중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awford & Eklund, 1994). 이로 인해 많은 여대생이 비정상적인 체중감량을 시도하여 거식증 내지 폭식증을 경험하고 있다(김종우, 2011; 신현경 등, 2011; 최봉순, 홍진표, 2000). 또한 여대생은 원하는 옷을 입었다가 자신감을 잃어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행동인 '철회', 날씬한 사람과 있을 때 피하는 행동인 '회피', 살을 빼기 위해 음식을 과도하게 절제하는 행동인 '과도한 교정행동'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Leary & Kowalski, 1995). 이처럼 사회적 체형불안은 여대생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여러 문제점을 유발시킨다.

지난 20년간 사회적 체형불안을 주제로 약 800여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최윤선, 2008). 체육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자기평가체형에 따른 사회적 체형불안과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한 연구(최영준, 이동환, 오갑진, 2003)와 자기평가체형과 체력수준 및 운동 빈도가 중학생의 사회적 체형불안에 미치는 영향(신현주, 정연택, 류호상, 2012) 등이 있다. 또한 무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성향과 사회적 체형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황규자, 2009)와 직업무용수의 신체상 자기지각차이가 사회적 체형불안 및 공연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현숙, 정상훈, 2011) 등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사회적 체형불안을 주제로 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scale) 자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Hart, Leary와 Rejeski(1989)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Social Physique Anxiety Scale, SPAS)를 사용하였다. 이는 외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척도로 체형 표현 편안함, 부정적인 체형평가 예상의 2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많은 연구에서 이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 척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박인혜, 2010; 이진오, 강상조, 박찬호, 2009; 최윤선, 2008; Motl & Conroy, 2000; Scott, Burke & Joyner & Brand, 2004).

이진오 등(2009)의 연구에서는 타당도 검증을 통해 SPAS가 실제로 단일한 특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도구임을 증명하였다. 최윤선(2008)의 연구에서 SPAS는 사회적 체형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사회적 바람직성 즉,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에 대해 실제 자신의 태도 수준 보다 낮은 수준의 반응범주를 선택하게 되는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SPAS의 요인구조와 문항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제시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Motl과 Conroy(2000)는 SPAS가 사회적 체형불안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Martin, Rejeski, Leary, McAuley와 Bane(1997)은 SPAS 중 적합하지 않은 3문항을 제외하여 2요인 12문항의 SPAS를 단일요인의 9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단지 기존 SPAS에서 몇 문항만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SPAS와 큰 차이를 보이진 못했다. 김보경(2006)의 연구에서는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사회적 체형불안의 경험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체형불안의 경험 유형은 타인이 부정적 평가를 했을 때, 모임에서 타인과 대면했을 때, 자신의 신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때, 날씬하고 이상적인 타인과 비교될 때, 성적인 접촉을 할 때, 옷과 체형이 부적합할 때로 나타났다. 이 중 타인이 부정적 평가를 했을 때, 성적인 접촉을 할 때, 옷과 체형이 부적합할 때만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만 발견될 수 있는 독특한 불안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김보경(2006)의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발견할 수 없는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차별적인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 김남재(2000)의 연구에서는 대인간 평가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체형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송지연, 박기환(2009)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체형불안은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한 상황의식, 눈치, 배려의식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양의 사회적 체형불안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함을 밝혔다. 따라서 외국에서 개발된 SPAS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들의 차별적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타 연령대에 비해 체형에 대한 관심도와 불만족도가 높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의식과 문화를 반영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는 사회적 체형불안의 각 요인을 측정하는 내용에 기초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 2)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는 내적 구조에 기초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 3)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는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기초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 4)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는 사회적 체형불안을 신뢰롭게 측정하는가?

3. 용어의 정의

1) 사회적 체형불안

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

2) 타인평가 불안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개념을 구성하는 3개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타인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관해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

3) 자기평가 불안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개념을 구성하는 3개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자신의 체형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여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

4) 의복관련 불안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개념을 구성하는 3개의 하위요인 중 하나로 옷과 체형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안을 의미한다.

5) 사회인지이론

사회적 상황에서의 학습은 환경, 개인 변인과 행동 간의 삼원적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6) 척도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을 수량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단위를 가지고 그 특성에 숫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측정도구를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연구대상을 여자대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대에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체형불안 이론

1) 사회적 체형불안의 개념

사회적 체형불안이란 타인이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Hart, 1989). 이는 신체를 사용하여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보다는 자신의 체형에 관해 다른 사람의 평가를 걱정하는 측면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체형불안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편함을 의미하는 사회적 불안의 하위형태로 정의된다. 사회적 체형불안은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체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근육, 골격, 영양 상태 따위로 나타나는 몸 전체의 외관적 형상을 의미한다. 사회적 체형불안과 관련된 또 다른 개념으로 신체적 정서(Physical Emotions)가 있는데 이는 신체에 대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여러 관점의 만족 또는 불만 수준으로 설명된다. 사회적 체형불안은 체중조절과 같은 자기표현 문제, 몸매와 체중에 대한 만족도, 신체적 자기표현의 믿음, 신체적 매력과도 관계를 가진다(신현주, 2011; Eklund & Crawford, 1994; Martin & Mack, 1996; McAuley & Burman, 1993).

2) 사회적 체형불안의 원인

사회적 체형불안의 원인은 자아-표상(self-presentation) 모형으로 설명되어 왔는데, 자아-표상은 가상 또는 실제의 사회적 상황에서 자아상을 조절하려는 시도를 뜻한다. 인간은 타인이 자신의 자아상을 의도적으로나 비의도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자아상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인의 인지구조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 불안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하는 상상적인 혹은 실제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한다(김보경, 2006; Leary, 1982; Schlenker & Leary, 1982). 또다른 사회적 불안에 관한 이론으로 Sullivan (1953)의 이론이 있다. 그는 가족, 부모, 친구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만약 어린이가 부모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자신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에게 학대를 받게 되면 그는 대인상황에서 불

안을 느끼게 된다. 이 이론에서 사회적 불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지각했을 때 나타나는 위협이라고 설명한다(김보경, 2006; Sullivan, 1953).

위의 이론들을 종합하면 사회적 불안의 원인을 인지적 차원과 정의적 차원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인지적 차원에서는 첫째, 올바르게 못한 불안 처리과정, 둘째, 불안에 대한 과장된 해석, 셋째,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부정적 사고 등이 사회적 체형불안을 일으킨다. 정의적 차원에서는 첫째, 신체적 불안감의 탄로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셋째, 낮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 넷째, 자신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자의식 등의 심리적 불안이 사회적 체형불안을 유발하거나 가중시킨다(김보경, 2006).

3) 사회적 불안의 개념

불안이란 학술적인 용어로만 사용되는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스트레스, 긴장, 초조 등의 용어와도 혼용되고 있다. 학술적으로 불안을 정의하면 '상상적인 위협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으로 짜증감 또는 불쾌감을 동반하는 긴장, 우울, 흥분상태'이다(정은주, 2007; Lertt, 1980; Martens, Vealey & Burton, 1990).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 불안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해진 위협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는 정서적 상태로써 공포와 유사하게 보기도 하나 대상을 명확하게 지적할 수 없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공포와 구별된다.

사회적 불안이란 상상속 혹은 실제의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거나 예상될 때 나타나는 불안이다.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은 이런 상상 속 혹은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더욱 느끼게 된다. 이들은 사회적 불안이 낮은 사람보다 재치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수행능력이 뒤떨어진다고 스스로를 평가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과소평가하고 자신이 수행한 결과에 관해 실제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한갑수, 1998).

4) 사회적 불안의 인지적 이론: 자기표현 이론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나 특성을 설명하는데 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인혜, 2010; Beck, Emery & Greenberg, 1985; Carver & Scheier, 1986). 이러한 이론들은 사회적 불안이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인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중 자기표현(self-presentation) 이론이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원인을

잘 설명하고 있다. 자기표현이란 '인상관리' 또는 '자기제시'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대인관계에서 인상관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박인혜, 2010; Leary & Knowalski, 1995). 즉, 자신이 타인에게 어떠한 인상을 주는가는 자신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은 자기표현이나 인상관리를 하게 된다. 자기표현 이론에 의하면 자기표현 동기와 자기표현 기대는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1) 자기표현 동기

Leary와 Kowalski(1995)는 자기표현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였다. 첫째로, 성과(outcome) 요인이다. 이는 자신이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자기표현 동기가 높아져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인상감찰(impression monitoring)요인이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생각 정도를 의미한다. 인상감찰이 높을수록 개인은 자기표현 동기가 높아져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셋째, 상대방의 특성과 인원수이다. 개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을 때 불안을 더 느끼게 된다. 또한 유능하거나 매력적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여겨 그들이 이러한 사람을 만날 때 자기표현 동기가 높아지며 이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체형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2) 자기표현 기대

자기표현 기대(self-presentation expectancy)는 자신이 목적으로 한 인상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주관적 확률로써의 기대이다. 이는 자기표현 효능감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기표현 기대는 대인관계 부담과 자기표현적 자원(self-presentational resource)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다. 대인관계 부담은 자신이 목적으로 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투자해야하는 노력, 의식적 사고의 정도를 의미한다. 자기표현적 자원의 평가는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 신체적 매력 등에 대한 평가이다. 대인관계에서 자기평가적 자원을 낮게 평가하거나 대인관계에 부담을 크게 느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박인혜, 2010; Leary & Kowalski, 1995).

5) 사회인지이론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은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는 학습에 대한 전통적인 행동주의적 관점은 정확한 편이지만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행동주의 학자들은 학습에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영향과 상황적

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고, 학습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해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김울, 2008). 이 이론에서는 상호결정론 즉, 개인의 행동은 외부의 자극만으로 또는 내부의 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역동적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인지적 요인에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자아효능감), 행동결과에 투여하는 가치(동기 또는 기대),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결과 기대감) 등이 속한다. 행동적 요인에는 스스로의 행동변화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능력(자기통제력), 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습득(행동수행력) 등이 속한다. 환경적 요인에는 타인의 행동 결과가 가져다주는 보상을 보고 배우는 것(대리강화), 타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학습하는 것(관찰학습) 등이 속한다(이정은, 2011).

2. 검사도구 제작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 개발을 위해 표준화된 검사도구의 개발과정(김성곤, 2000; 김지윤, 2012; 이종범, 2005; 정철영, 2002; 정현희, 2006; 탁진국, 1996; Crocker & Algina, 1986; Gable & Wolf, 1993; Kline, 1986)을 참고하였다.

1) 검사개발 계획 수립

(1) 검사목적 확립 및 대상선정

검사도구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검사의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즉, 검사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검사제작의 용도와 목적이 무엇인가와 검사의 대상이 될 집단의 구성 및 특성은 어떠한가를 확인해야 한다(김지윤, 2012; 임인재, 1973; 탁진국, 1996; Walsh & Betz, 1995). 검사도구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므로 검사목적은 종합적이고 명료하게 서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과 검사대상 및 그에 따른 검사사용 목적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구인을 대표하는 행동파악

이 단계에서는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구성개념(psychological construct)을 표현하는 행동유형을 파악하여 조작적(operational)으로 정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구인을 설정하는 방법은 외재적 접근방식, 연역적 접근방식, 귀납적 접근방식으로 분류한

다(김지윤, 2012; Crocker & Algina, 1986; Nunnally & Bernstein, 1994).

첫째, 외재적 접근방식(criterion group method)은 준거그룹 지향적 접근방식 또는 경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준거그룹을 정하여 그룹간의 차이에 따라 심리적 특징을 구성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접근방식에 의하면 표준집단과 준거집단의 차이 구명을 통해 심리적 특징을 구인화하여 하위 영역을 설정한다.

둘째, 연역적 접근방식(deductive method)은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여 몇 개의 하위 영역으로 심리특성을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접근방식에 의하면 검사 개발자가 기존 검사 도구에서 정한 하위영역 및 심리적 특성에 관련된 이론을 토대로 하위영역을 설정하게 된다.

셋째, 귀납적 접근방식(inductive method)은 적절한 표본을 대상으로 문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관분석 또는 요인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하위영역을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접근방식에 의하면 먼저 구인개념을 대표하는 행동을 파악한 후에 하위영역을 통계적 방법에 기초하여 설정하게 된다.

2) 문항개발

(1) 예비문항 작성

예비문항을 작성할 때는 가장 먼저 문항 수를 정해야 한다. 예비문항의 수는 최종 문항의 개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검사의 신뢰도는 문항의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검사에 포함되는 문항의 개수는 많을수록 좋다.

(2) 문항반응 양식 결정

적성검사와 같은 최대능력형 검사는 중다선택형 또는 진위형 반응양식을, 성격검사와 흥미검사와 같은 행동표현형 검사는 라이커트(Likert) 또는 이분화 동의-부동의 반응양식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문항반응 양식 및 형태는 피검자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증을 거쳐 결정하거나 소표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결과 통계치를 근거로 결정한다.

(3) 반응편파 최소화를 위한 문항선정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응답, 무성의한 반응 등과 같은 응답자의 반응에 대한 오류를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은 같지만 유형이 다른 문항, 모두에게 맞거나 틀리는 문항 등을 사용한다.

(4) 문항수정 및 검토

문항수정 및 검토 단계에서는 내용에 기초한 근거 즉,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검증한다. 내용타당도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문항이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그 특성을 잘 대표하는지, 일반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를 함께 조사하여 문항을 검토한다. 안면타당도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검사문항이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여 내용적 근거를 확인한다.

3) 예비조사 실시

(1) 1차 예비조사 및 검사 수정

1차 예비조사는 소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읽기 및 반응의 용이성, 지시문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며 경험적 증거와 판단적 증거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때 검사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실시 시기는 적당한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 1차 예비조사를 통해 검사에 대한 통계치를 얻을 수 있지만 이는 문항의 수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2) 2차 예비조사

일반적으로 2차 예비조사는 최종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표본구성이 중요한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은 내적일관성에 따른 신뢰도 분석과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뜻하는 신뢰도 분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비조사에서는 KR-20이나 신뢰계수 α (Cronbach's α)를 분석하고 통계 결과를 근거로 검사문항, 하위검사 및 검사간의 비중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본조사 실시

채점절차와 검사실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표준화, 채점의 표준화, 검사상황의 표준화, 검사지시의 표준화, 검사내용의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김지윤, 2012; Anastasi & Urbina, 1997; Hood & Johnson, 1997). 채점절차 및 검사의 실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대단위로 설정하여 양호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선행연구

사회적 체형불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보경(2006)은 건강운동 참가여성 11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체형불안의 경험 유형과 그때의 정서적 반응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회적 체형불안의 경험 유형은 성적인 접촉을 할 때, 자신의 신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때, 타인이 부정적 평가를 할 때, 날씬한, 이상적인 타인과 비교될 때, 모임에서 타인과 대면했을 때, 옷과 체형의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체형불안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우울, 분노, 슬픔, 혐오, 불안의 5개의 기본정서로 나타났고 부끄러움, 불쾌·짜증, 결심, 경외 등 10개의 복합정서로 도출되었다.

박인혜(2010)는 중년여성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회피, 신체적 표현 불만족, 부정적 체형평가의 3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던 사회적 회피 요인이 발견되었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차별적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요인별 2~3문항은 측정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데(김용국, 성차훈, 2007; 박인혜, 2010), 이 척도에서는 부정적 체형평가와 신체적 표현 불만족 요인의 문항이 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사회적 체형불안을 표현할 수 있는 문항들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진오 등(2009)은 SPAS가 실제로 단일한 특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도구임을 증명하기 위해 내적 구조에 기초한 타당도, 검사 내용에 기초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내적구조에 기초한 타당도에서는 단일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을 가정하는 Rasch모형과 실제 관측치와의 거리가 멀게 나타나서 단일한 특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용에 기초한 타당도에서는 몸매와 외모의 걱정과 관련된 문항과 몸매의 건강과 관련된 문항이 부적합하여 단일한 특성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Motl과 Conroy(2000)는 여자 대학생 146명과 남자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SPAS의 2요인이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요인은 단지 긍정, 부정으로 나눈 것이고 사실상 하나의 의미(사회적 체형불안)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들은 사회적 체형불안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적 체형불안은 환경적(environmental) 또는 활동(activity), 자기표현 동기(self-presentational motive), 신체 관련 요소(body-part specific components) 등을 포함하는 많은 요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SPAS의 문항들은 일반적인 형태 즉, 다른 사람에 의해 한 개인의 몸매가 부정적으로 평가 받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만을 측정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cott 등(2004)의 연구에서는 걱정과 관련된 문항과 몸매에 대한 느낌과 관련된 문항이 사회적 체형불안 보다는 신체만족도와 더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몸매에 신경 쓰는 것과 관련된 문항은 참가자들 사이에 혼동을 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문항들보다 약한 연계성이 나타났다.

구본칠(2004)은 SPAS를 바탕으로 Motl과 Conroy(2000)에 의해 수정된 9문항의 척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SPAS의 신체적 표현만족과 부정적 체형평가(예상) 요인과 동일하였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용민, 정상훈(2011)은 대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신체상 불일치 정도에 따른 사회적 체형불안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제 체형과 이상적 체형이 불일치하는 정도가 클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체형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2008)는 중고교 여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체형불안이 어떤 요인들과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체형불안은 연령이나 체격 조건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담론 즉,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정민(2010)은 여고생 303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BMI에 따른 사회적 체형불안, 그리고 자기평가 체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BMI에 따른 사회적 체형불안과 자기평가 체형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신의 체형을 비만하다고 평가할수록 사회적 체형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BMI가 비만에 해당하는 여고생이 과체중, 정상, 저체중에 해당하는 여고생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여고생들은 자신의 체형을 실제 BMI 기준보다 더 비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준, 이동환, 오갑진(2003)은 남·여 중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체형이 신체적 자기개념과 사회적 체형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자신의 체형을 약간 마름이나 보통으로 평가한 집단이 신체전반, 지구력, 유연성, 자기존중, 건강, 외모, 체지방의 7개 신체적 자기개념의 하위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평가한 집단이 사회적 체형불안 수준이 가장 낮았고, 너무 살찐이라고 평가한 집단이 사회적 체형불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202명), 인천(37명), 경남(53명), 전북(50명), 제주(693명)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 1,035명이다. 이 중 180명의 자료는 응답이 부실하다고 판단되거나 한쪽으로 집중되어 이를 제외한 855명의 자료가 실제로 사용되었다.

여자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여대생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외모에 민감하고,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체형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요인탐색 및 선정, 예비문항 개발, 본 검사지 개발 단계를 거쳐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림 1>은 연구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1) 요인탐색 및 선정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 그리고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요인탐색 및 선정과정은 아래와 같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사회적 인지이론(Bandura, 1986), 사회적 불안(김보경, 2006; Beidel, Turner & Dancu, 1985; Clark & Arkowitz, 1975; Leary & Kowalski, 1995), 그리고 기존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박인혜, 2010; Hart et al., 1989; Motl & Conroy, 2000)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여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 중 김보경(2006)의 연구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체형불안 경험 상황 즉, 타인이 부정적 평가를 할 때, 모임에서 타인과 대면했을 때, 자신의 신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때, 날씬한/이상적인 타인과 비교될 때, 성적 접촉을 할 때, 옷과 체형의 부적합을 선정 가능한 요인 후보로 탐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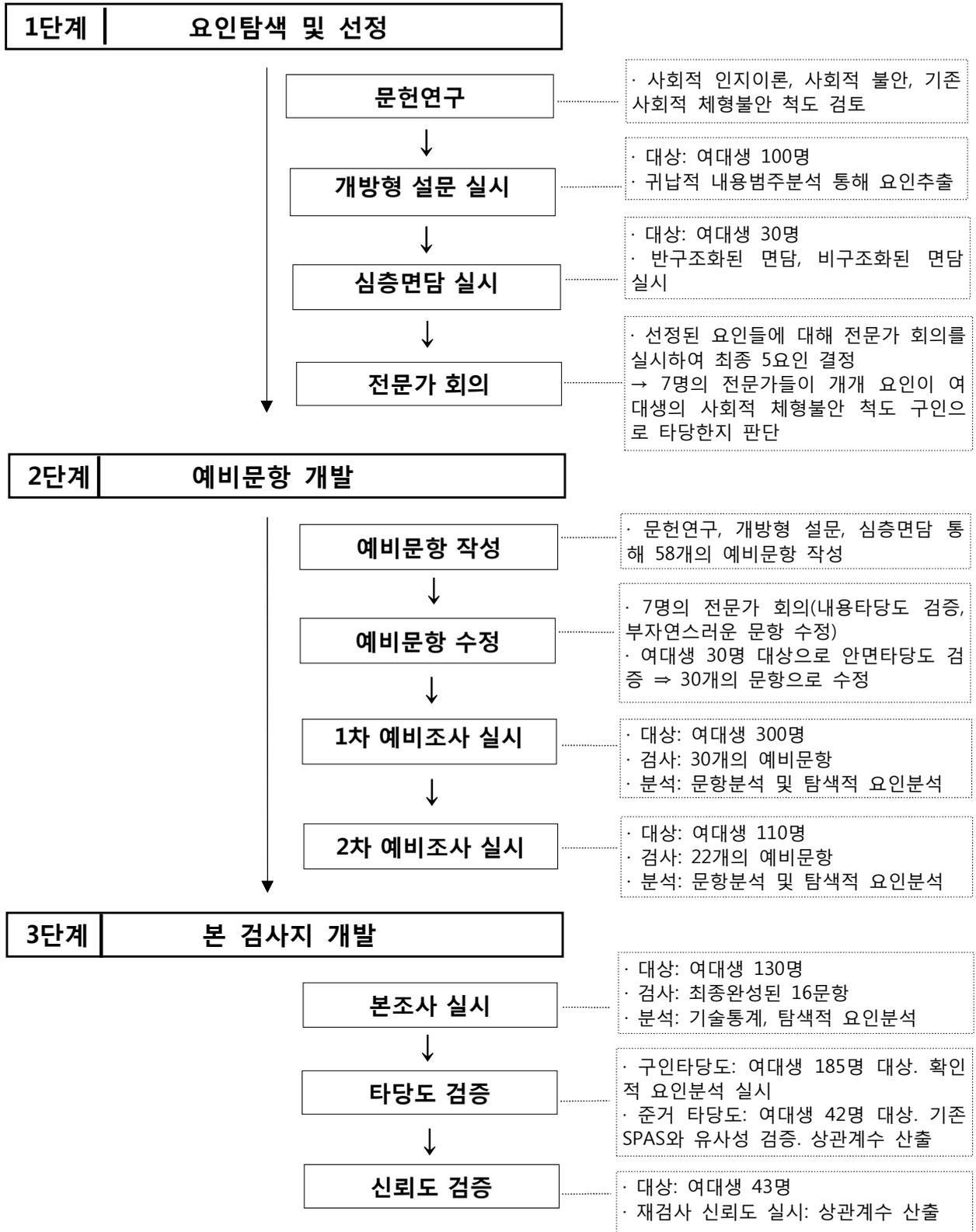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절차

(2) 개방형 설문 실시

개방형 설문은 사회적 체형불안을 경험하는 상황과 그때의 정서적 반응을 탐색기 위해 여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개방형 설문 문항은“여러분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몸에 대하여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그때 경험한 불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를 질문하였고, 5점 척도(전혀 심하지 않음, 심하지 않음, 보통, 심함, 매우 심함)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자신의 몸에 대하여 불안을 경험한 상황은 언제였습니까?“,“그 상황에서 느낀 기분은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를 물어 세 가지 이상 기입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내용 범주분석(inductive categorial system)을 통해 원자료를 대주제(themes)별로 분류한 후, 그 주제를 다시 범주(categories)로 분류하는 단계를 거쳐 요인을 추출하였다(김보경, 2006).

(3) 심층면담 실시

심층면담은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할 때 간과될 수 있는 잠재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문헌연구와 개방형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면담 (semi-structure d interview)을 실시하였고,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비구조화된 면담 (unstructured interview)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합의 하에 면담내용을 녹취한 후 개방형 설문 과정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귀납적 내용 범주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① 반구조화된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에서는“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 같을 때가 언제입니까?“,“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그때 느끼는 구체적인 감정은 어떻습니까?“등을 질문하였다.

② 비구조화된 면담

비구조화된 면담에서는“이성을 만날 때나 신체활동을 할 때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다른 사람과 있을 때 자신의 키 때문에 불안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등을 질문하였다.

(4) 전문가 회의

전문가 회의는 체육측정평가와 스포츠심리학 박사급 전공자 4명, 체육측정평가 전공자 3명 총 7명의 전문가들이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을 통해 선정된 요인을 탐색하였다. 선정된 요인은 7개로 옷과 체형의 부적합, 개인 간 비교, 공공장소, 이성 접촉, 타

인의 평가, 신체활동, 부정적 신체상이었다. 이 요인들이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구인(construct)으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최종 5요인인 옷과 체형의 부적합, 개인 간 비교, 공공장소, 이성 접촉, 타인의 평가를 선정하였다.

2) 예비문항 개발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을 통해 최초 58개의 문항을 작성하였고, 이 문항들을 수정 및 삭제하여 총 30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30개의 문항에서 8개의 문항을 삭제하여 총 22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고, 이 22개의 문항에서 6개의 문항을 삭제하여 총 16개의 최종문항을 완성하였다. 예비문항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문항 작성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을 통해 58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기존 SPAS에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에 포함 가능한 문항을 검토하여 추가하였고, 개방형 설문 결과와 심층면담에서 나타난 사회적 체형불안을 느끼는 상황과 그때의 정서적 반응을 근거로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2) 예비문항 수정

58개의 예비문항을 체육측정평가와 스포츠심리학 박사급 전공자 4명, 국문학 전공자 2명, 논술 전공자 1명 총 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예비문항의 내용에 기초한 근거(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이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문항인지를 확인하였다. 즉, 각 문항이 사회적 체형불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그 특성을 잘 대표하는지, 일반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문항의 난이도가 여대생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 불필요한 것이 없는지, 여대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여대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여 내용적 근거(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을 30개로 수정하였다.

(3) 1차 예비조사 실시

30개의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여자 대학생 3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상관을 산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와 문항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다. 또한 체육측정평가와 스포츠심리학 박사급 전공자 4명,

체육측정평가 전공자 3명으로 총 7명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문항을 22개로 수정하였다.

① 문항분석

문항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상관을 산출하여 문항 평균이 1에 가깝거나 5에 가까운 문항과 표준편차가 0.1이하인 문항은 삭제 대상이었다(탁진국, 2000). 왜도와 첨도가 ± 2 이상인 문항은 삭제를 고려하였다(엄한주, 2005). 그리고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이 0.5이하인 문항은 삭제 대상이었다(Hart, 1989).

②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구조와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모형을 적용하여 검사의 요인을 해석하였고 구조계수(factor structure loading) 행렬 값을 기초로 문항을 배정 또는 삭제를 검토하였다.

(4) 2차 예비조사 실시

22개의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여자 대학생 11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상관을 산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와 문항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다. 또한 체육측정평가와 스포츠심리학 박사급 전공자 4명, 체육측정평가 전공자 3명으로 총 7명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문항을 16개로 수정하였다.

① 문항분석

문항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상관을 산출하여 문항 평균이 1에 가깝거나 5에 가까운 문항과 표준편차가 0.1이하인 문항은 삭제 대상이었다(탁진국, 2000). 왜도와 첨도가 ± 2 이상인 문항은 삭제를 고려하였다(엄한주, 2005). 그리고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이 0.5이하인 문항은 삭제 대상이었다(Hart, 1989).

②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구조와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모형을 적용하여 검사의 요인을 해석하였고 구조계수행렬 값을 기초로 문항을 배정 또는 삭제를 검토하였다.

3) 본 검사지 개발

최종 완성된 16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본조사, 타당도 검증,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검사지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본조사 실시

16개의 최종 문항을 대상으로 여자 대학생 13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계수 알파값을 산출하여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2) 타당도 검증

최종 완성된 사회적 체형불안 검사를 대상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① 구인타당도 검증

구인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가설모형으로 하여 자료와 모형의 합치도를 확인하였다. 독립된 표본 185명을 대상으로 최종 완성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를 실시한 후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② 준거타당도 검증

최종 완성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를 대상으로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를 확인하였다. 검사-준거 관련성(test-criterion relationship)은 여대생 42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검사인 Hart 등(1989)에 의해 제작된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를 실시하여 두 검사 간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3) 신뢰도 검증

최종 완성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가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재검사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를 실시하였다. 재검사 신뢰도는 여대생 43명을 대상으로 1차 검사를 실시한 후 4주 후에 2차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version 9.3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등의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신뢰도 검증은 신뢰계수 α (Cronbach's α)를 계산하여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SAS version 9.3을 이용하여 공통요인모형(common factor model)으로 분석하였다. 기초구조는 단일주축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를 사용하여 산출하고 공통분(communality, 공유치)의 초기추정치는 다중상관제곱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사용하였다. 요인 수는 스크리 검사, 누적분산비율, 그리고 내용적

해석을 기초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각회전(Harris와 Kaiser, 1964)으로 기초구조를 회전한 후 구조계수(factor structure loading) 행렬을 기초로 값의 크기가 0.3 또는 0.4이상인 요인계수가 3개 이상 발견된 경우(Thurstone, 1947) 요인을 해석하고 이름을 부여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 version 8.8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가설모형으로 하여 합치도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상관행렬,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을 사용하였다. 요인에 대한 척도제공을 위해 요인의 분산을 1.0으로 지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개략화 오차평균(RMSEA), 비표준합치도(NNFI), 표준합치도(NFI), 기초합치도(GFI), 조정합치도(AGFI), 원소간 평균차이(RMR), 간명도 반영지수(PNFI, PGFI), 비교합치도(CFI), 교차타당도지수(ECVI) 등의 합치도 지수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전반적 합치도를 확인한 후 모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세부적 합치도인 수정지수(MI값)와 고정지수(T값), 측정변수의 다중상관계수를 참고로 모형을 수정하였다.

최종 완성된 여대생의 사회적 불안척도의 준거타당도 및 재검사 신뢰도는 상관계수(r)를 산출하여 확인하였고, 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신뢰계수 α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요인탐색 및 선정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을 구성하는 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 그리고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5요인 즉, 옷과 체형의 부적합, 개인 간 비교, 공공장소, 이성 접촉, 타인의 평가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요인탐색과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사회적 인지이론(Bandura, 1986), 사회적 불안(김보경, 2006; Beidel, Turner & Dancu, 1985; Clark & Arkowitz, 1975; Leary & Kowalski, 1995), 그리고 기존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박인혜, 2010; Hart et al., 1989; Motl & Conroy, 2000)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여 요인을 탐색하였다. Hart 등(1989)에 의해 개발된 SPAS는 체형 표현 편안함(긍정 요인), 부정적인 체형평가 예상(부정 요인)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 2요인은 단지 긍정, 부정으로 나눈 것이고 사실상 하나의 의미(사회적 체형불안)를 지니고 있어 사회적 체형불안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Motl & Conroy, 2000). 박인혜(2010)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는 사회적 회피, 신체적 표현 불만족, 부정적 체형평가의 3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Motl과 Conroy(2000)에 의해 수정된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는 기존 SPAS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만을 제거한 것이므로 SPAS의 요인과 동일했다. 김보경(2006)은 20~50대 여성들의 사회적 체형불안 경험 상황 즉, 타인이 부정적 평가를 할 때, 모임에서 타인과 대면했을 때, 자신의 신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때, 날씬한/이상적인 타인과 비교될 때, 성적인 접촉을 할 때, 옷과 체형의 부적합을 제시하였다.

2) 개방형 설문

개방형 설문은 사회적 체형불안을 경험하는 상황과 그때의 정서적 반응을 탐색하기 위해 여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내용 범주분석을 통해 원자료를 대주제별로 분류한 후, 그 주제를 다시 범주로 분류하는 단계를 거쳐 요인을 추출하였다(김보경, 2006).

(1) 사회적 체형불안의 경험 유형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경험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226개의 원자료를 얻었다. 이 원자료를 유형이 유사한 내용을 모아 12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었고, 이 세부영역을 다시 7개의 일반영역으로 최종 분류하였다. <그림 2>는 각 영역별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원자료로부터 추출된 7개의 일반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옷과 체형의 부적합

총 69개의 응답을 대상으로 4개의 세부영역 즉, 사고 싶은 옷을 못 살 때, 옷을 입었는데 만족하지 못할 때, 옷이 안 맞을 때, 신체가 노출되는 옷을 입었을 때로 구분하였고 최종적으로 옷과 체형의 부적합 요인으로 채택하였다. 옷과 체형의 부적합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 중 약 3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② 타인과의 비교

총 58개의 응답을 분석하여 타인과의 비교 요인으로 채택하였는데 이 응답은 전체 응답 중 약 26%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③ 부정적 신체상

총 34개의 응답을 분석하여 부정적 신체상 요인으로 채택하였는데 이 응답은 전체 응답 중 약 15%를 차지하였다.

④ 공공장소

총 28개의 응답을 분석하여 공공장소 요인으로 채택하였는데 이 응답은 전체 응답 중 약 12%를 차지하였다.

⑤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

총 29개의 응답을 대상으로 2개의 세부영역 즉, 가족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친구·선배가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로 구분하였고 최종적으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채택하였다.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 중 약 13%를 차지하였다.

⑥ 신체활동

총 4개의 응답을 분석하여 신체활동 요인으로 채택하였는데 이 응답은 전체 응답 중 약 11%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⑦ 이성과의 접촉

총 4개의 응답을 분석하여 이성과의 접촉 요인으로 채택하였는데 이 응답은 전체 응답 중 약 11%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원자료	세부영역	일반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고 싶은 옷에 사이즈가 없을 때 · 허리는 남는데 허벅지 때문에 옷을 못 살 때 (2) · 옷가게에서 옷이 안 들어가서 사지 못할 때 · 사이즈 걱정하면서 옷을 고를 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가게에서 맘에 드는 옷을 입었는데 별로일 때 · 다른 사람에 비해 옷 입는 것에 규제가 있을 때 · 옷을 입었는데 내 모습이 예뻐 보이지 않을 때(3) · 옷을 입었을 때 예전과 다른 핏이 날 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을 샀는데 작을 때 (2) · 예전에 입던 옷이 안 맞을 때 · 집에서 옷을 입었는데 안 맞을 때(10) · 속옷이 맞지 않을 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었을 때(6) · 노출이 많은 옷을 입었을 때 · 치마를 입었는데 다리가 굵어 보일 때 · 스키니를 입었을 때(2) 	<p>사고 싶은 옷을 못 살 때 (7개/ 3.10%)</p> <hr/> <p>옷을 입었는데 만족하지 못할 때 (26개/ 11.50%)</p> <hr/> <p>옷이 안 맞을 때 (20개/ 8.85%)</p> <hr/> <p>신체가 노출되는 옷을 입었을 때 (16개/ 7.08%)</p>	<p>옷과 체형의 부적합 (69개/ 30.5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씬한 친구와 있을 때 (5) · 주의사람이 살이 빠져 나랑 비교될 때 (2) · 날씬하거나 마른 사람을 봤을 때(10) · 몸매 좋은 사람을 보았을 때(4) · 인터넷 쇼핑몰 모델 몸매와 비교될 때 · 연예인을 봤을 때 (4) 	<p>타인과의 비교 (58개/ 25.66%)</p>	<p>타인과의 비교 (58개/ 25.6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앉아 있는데 뚱뚱해 보일 때 (2) · 많이 먹고 배가 불렀을 때 (2) · 많이 살찐다고 생각할 때 · 의자에 앉았는데 허벅지가 퍼질 때(3) · 거울 보는데 내 몸이 뚱뚱해 보일 때(4) · 키가 작아서 버스 손잡이를 잡기 힘들 때 · 체중이 늘었을 때(2) 	<p>자신의 신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때 (34개/ 15.04%)</p>	<p>부정적 신체상 (34개/ 15.04%)</p>

그림 2. 사회적 체형불안 경험 상황(빈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 살찐다며 살 좀 빼라고 했을 때 · 남동생이 꼬끼리 다리라고 놀렸을 때 · 부모님이 엉덩이가 크다고 했을 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에게 살찐다는 말을 들었을 때(3) · 주위에서 살 빼라고 할 때(2) · 사람들이 다리가 두껍다고 할 때 · 키가 작아서 대학생 안 같다고 할 때 · 친구들이 내 몸에 대해 놀렸을 때 · 낯선 친구와 있는데 뒤에서 비교할 때 	<p>가족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5개/ 2.21%)</p> <hr/> <p>친구 · 선배가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24개/ 10.62%)</p>	<p>타인의 부정적인 평가 (29개/ 12.8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탕 갈 때 (9) ·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을 때(3) · 수영장에 갔을 때 (4) · 커피숍에서 커피를 가지러 앞으로 나갈 때 · 발표할 때 · 옷을 갈아입을 때(2) · 병원 검사나 입원할 때 	<p>공공장소 (28개/ 12.39%)</p>	<p>공공장소 (28개/ 12.3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하는데 스스로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2) · 필라테스를 하는데 몸이 둔해서 잘 따라하지 못할 때 · 체력장 시 모든 영역에서 낮은 점수 나올 때 	<p>신체활동을 할 때 (4개/ 1.77%)</p>	<p>신체활동 (4개/ 1.7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친구가 업어준다고 번쩍 들어 올릴 때 · 형제들이 살에 대해 언급했을 때 · 남자애들이 훑어보면서 똥똥하다 했을 때 · 이성 앞에서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p>이성과 접촉할 때 (4개/ 1.77%)</p>	<p>이성과의 접촉 (4개/ 1.77%)</p>

그림 2. 사회적 체형불안 경험 상황(빈도/비율) -계속

(2) 사회적 체형불안에 대한 정서적 반응

사회적 체형불안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탐색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219개의 원자료를 얻었다. 이 원자료를 유형이 유사한 내용을 모아 24개의 세부영역으로 나누었고, 이 세부영역을 다시 2개의 일반영역으로 최종 분류하였다. 각 영역별 내용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원자료	세부영역	일반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노했다 (2) · 불안했다(4) · 우울했다(13) · 슬프다(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노 (4개/ 1.83%) 불안 (4개/ 1.83%) 우울 (13개/ 5.94%) 슬픔 (5개/ 2.28%) 	기본 정서 (31개/ 1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끄럽다 (14) · 창피하다 (31) · 짜증나다 (16) · 불쾌하다 · 내가 돼지 같다고 생각했다 (2) · 내가 너무 똥똥하다 · 내가 싫다 · 수치스럽다 (7) · 속상하다(4) · 살 빼야겠다(20) · 운동 해야겠다 · 그만 먹어야겠다 · 후회 된다 (4) · 아까 치킨 왜 먹었지 후회 된다 · 부럽다 (19) · 나도 예쁜 몸매를 갖고 싶다 · 나도 저렇게 살 빼고 싶다(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끄러움·창피함 (35개/ 15.98%) 짜증 · 불쾌 (17개/ 7.76%) 자책 (5개/ 2.28%) 수치심(7개/ 3.20%) 속상함 (4개/ 1.83%) 결심 (18개/ 10.50%) 후회 (5개/ 2.28%) 선망(22개/ 10.05%) 	

그림 3. 사회적 체형불안에 대한 정서적 반응(빈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망가고 싶다 ·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 숨고 싶다(5) 	회피 (10개/ 4.57%)	복합 정서 (188개/ 85.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스럽다 ·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지 부모님께 불평했다 	불만 · 불평 (2개/ 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념하다 · 그래도 먹는 것이 좋으니 체념한다 	체념(2개/ 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심하다 (3) · 나는 왜 자기 관리를 못할까 한심하다 	한심(4개/ 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등감(4) · 왜 나는 저렇게 날씬하지 못할까 	열등감(5개/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걱정스럽다 (2) · 사람들이 내 몸에 대해 수군댈까 걱정 된다 · 사람들이 내 몸을 보고 똥똥하다 할 것 같아 걱정된다 	걱정(4개/ 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축됨(7) · 자신감이 없어서 위축된다(10) · 낮가림이 심해서 소심해지고 위축된다 	위축(18개/ 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짜증나다(16) · 불쾌하다 	짜증 · 불쾌 (15개/6.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가났다 (5) · 곤란함 · 답답함 · 당황스러움(3) · 민망함 (5) · 긴장 · 회의감(2) ·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아볼까 생각함 	기타(20개/ 9.13%)	

그림 3. 사회적 체형불안에 대한 정서적 반응(빈도/비율)- 계속

3)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개방형 설문에서 간과될 수 있는 잠재 요인에 대한 추출을 위해 실시하였다. 앞서 문헌연구와 개방형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고,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1) 반구조화된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에서는 “언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그때 느끼는 구체적인 감정은 어떻습니까?” 등을 질문하였다. 아래 인용문은 반구조화된 면담 결과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K학생: “다른 사람들이 제 허벅지에 대해 얘기할 때 예민해져요. 저도 제 허벅지가 굵은 걸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꼭 살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H학생: “밖에 나가기 전에 옷을 입었는데 원하는 핏이 나오지 않으면 제 몸에 자신이 없어져요.. 이럴 때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져요, 사람들이 뚱뚱하게 볼 것 같아서 싫어요. ”

P학생: “커피숍에서 커피를 가지러 앞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제 몸을 쳐다볼 것 같아 불안해요. 제가 평소 허벅지에 자신이 없는데 커피를 가지러 앞으로 나가면 제 허벅지를 보며 평가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한 커피가 나오면 친구에게 가져와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Y학생: “날씬한 친구와 길을 걸을 때 위축이 돼요. 제 몸이 뚱뚱하게 느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친구는 날씬한데 나는 왜 저렇게 뚱뚱해? 하며 수군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날씬한 친구와 같이 걷게 되면 조금 떨어져서 걸으려고 해요.”

L학생: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볼 때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신경 쓰여요. 사고 싶은 옷을 입어보면 거의 꼭 끼거나 원하는 핏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창피하고 옷가게 언니들이 제 몸에 대해 평가할 것 같아 불안해요.”

L-2학생: “연예인들의 몸을 보면 제 몸과 너무 비교돼서 위축돼요.. 평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제 몸에 대해 별로 불만이 없는데 연예인들의 날씬한 몸매를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날씬하지 못할까? 나도 날씬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S학생: “수영장에 갈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요.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날씬해 보이지만 숨겨진 살들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수영복 입은 제 모습을 보고 제 몸이 생각 보다 뚱뚱하다고 얘기할까봐 겁나고 불안해요.”

M학생: “길을 걸어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제 몸을 훑어보면 불안함을 느껴요. ‘왜 내 몸을 보는 거지? 내가 뚱뚱해보이나? 너무 관리 못한 것처럼 보이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P-2학생: “제가 치마를 입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돼요. 치마를 입을 것을 좋아하지만 좋아리가 예쁘지 않아서 잘 못 입거든요.. 그래도 가끔 입고 나가면 하루 종일 신경 쓰여요. 다른 사람들이 안 좋게 평가할 것 같아요.”

B학생: “주위 사람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나타났을 때 제 몸과 비교되어서 위축돼요. ‘친구는 저렇게 관리할 때 나는 뭐 했지? ‘하며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날씬해진 친구가 부럽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S-2학생: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제 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불안해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날씬해지고 싶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살이 찌고 싶어요.. 너무 말라서 빈곤해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몸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어요. 가끔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말랐다고 할 것 같아 불안해요.”

K-2학생: “저는 허벅지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친구들을 만날 때 마다 신경 쓰여요. 이성친구들이 제 허벅지를 보고 놀라거나 수군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을 만날 때 허벅지를 가려주는 옷을 입으려고 해요.”

(2) 비구조화된 면담

비구조화된 면담에서는 “이성을 만날 때나 신체활동을 할 때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키 때문에 불안을 느끼거나 부정적

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등을 질문하였다. 아래 인용문은 비구조화된 면담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C학생: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키가 작은 편이지만 평소에는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하지만 키가 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위축되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키 큰 사람들과 있을 때마다 피하게 돼요.”

Y-2학생: “남자친구와 사귀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남자친구가 스킨십하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숨겨진 살들을 알게 되면 저를 싫어할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만 그랬지 나중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더라고요.”

W학생: “운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체육수업을 하면서 조금 운동을 했었지만 대학교에서는 체육수업이 의무적이지 않아 운동을 더 안하게 되더라고요.”

K-2학생: “운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제 가슴이나 배를 볼 것 같아 걱정돼요.. 사람들이 보면 놀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건 좋아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안하게 되더라고요.”

O학생: “평소 이성과 스킨십을 많이 하지 않아서 이럴 때 불안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가끔 이성친구나 선배가 허리와 같은 신체 일부를 건드리면 좀 거슬릴 뿐 이죠.”

H-2학생: “키가 작은 편인데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키가 큰 것도 좋겠지만 요즘은 키가 작은 연예인들도 아담하고 귀여워서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 것도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4) 전문가 회의

전문가 회의는 체육측정평가와 스포츠 심리학 박사급 전공자 4명, 체육측정평가 전공자 3명으로 총 7명의 전문가들이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선정된 요인을 탐색하였다. 선정된 요인은 7개로 옷과 체형의 부적합, 개인 간 비교, 공공장소, 이성 접촉, 타인의 평가, 신체활동, 부정적 신체상이었다. 이 중 신체활동과 관련된 응답은 개방형 설문과 심층면담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였고, 부정적 신체상도 다른 사

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아닌 단순히 자기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므로 제외하였다. 따라서 5개의 요인인 옷과 체형의 부적합, 개인 간 비교, 공공장소, 이성 접촉, 타인의 평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2. 예비문항 개발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을 통해 58개의 문항을 작성하였고, 이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여 총 30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30개의 문항에서 8개의 문항을 삭제하여 총 22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문항을 개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문항 작성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을 통해 58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기존의 SPAS에서 '나는 나의 매력 없는 몸매와 외모 때문에 모임에서 불안할 때가 있다'의 문항을 수정하여 추가하였고, 사회적 체형불안과 관련된 척도의 형용사 중 '불안하다', '염려된다' 등과 같이 적합한 것을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개방형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사회적 체형불안을 경험하는 상황과 그때의 정서적 반응을 기초로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면 친구들에게 살쨍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영장에 갔을 때, 남자친구가 안아 올릴 때 등의 불안 상황과 기분이 안 좋다, 두렵다, 걱정 된다 등의 정서적 반응을 바탕으로 '살쨍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다', '수영장 등 평소보다 몸이 많이 드러나는 곳에 가기가 두렵다', '남자친구가 안아 올릴 때 무겁다고 느낄까봐 걱정된다'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심층면담에서는 개방형 설문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응답들을 근거로 문항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위축되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걱정돼요"의 심층면담 내용을 근거로 '다른 사람에 비해 키가 작게 느껴져 속상할 때가 있다'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남자친구가 스킨십하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 숨겨진 살들을 알게 되면 저를 싫어할 것 같아 불안했거든요"의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남자친구가 어깨나 허리를 잡으려고 할 때 불편하다'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2) 예비문항 수정

58개의 예비문항을 체육측정평가와 스포츠심리학 박사급 전공자 4명, 국문학 전공자 2명, 논술 전공자 1명 총 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예비문항의 내용에 기초한 근거(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이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문항인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문항에 불필요한 것이 없는지, 여대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신체 불만족과 관련된 문항 즉, '사이즈가 맞지 않아 원하는 옷을 사지 못할 때 속상하다' 등의 문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항 즉, '주위에서 신체와 관련하여 놀렸을 때 기분이 나쁘다' 등의 문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체력장 시 낮은 점수가 나올 때 부끄러워진다', '운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 못하여 부끄러워진다'의 문항은 체형 보다 운동 능력과 더 관련이 있어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합한 요인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문항 즉,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개인 간 비교 요인에 배치된 '다른 사람과 몸매를 비교 당할까봐 두렵다' 등의 문항은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남자친구가 안아 올릴 때 무겁다고 느낄까봐 두렵다'의 문항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체형불안 수준이 높은 여대생을 구분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모임에 갔을 때 내 몸매에 자신이 없어 불안하다'의 문항을 추가하였고, '원하는 옷이 신체 특정 부위에 딱 낄 때에는 입고 나가기가 염려된다'를 두렵다의 감정으로 수정하였다. 여대생들은 맵시 보다 핏이라는 단어에 친숙해했기 때문에 이들이 더 공감 할 수 있도록 맵시(핏)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여대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문항이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여 내용적 근거(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검토 결과에 의하면 여대생들은 예비문항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체형과 관련된 불안을 측정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근거로 <표 1>과 같이 30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3) 1차 예비조사

30개의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여자 대학생 3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상관을 산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와 문항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다. 또한 체육측정평가와 스포츠심리학 박사급 전공자 4명, 체육측정평가 전공자 3명으로 총 7명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문항을 22개로 수정하였다.

(1) 문항분석

<표 2>는 1차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평균이 1에 가깝거나 5에 가까운 문항과 표준편차가 0.1이하인 문항을 삭제 대상으로 하였다(탁진국, 2000).

표 1. 1차 예비문항

번호	문항
1	옷맵시(핏)가 나지 않을 때에는 나가기가 꺼려진다.
2	몸매를 가리는 옷을 자주 입는다.
3	노출이 있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염려된다.
4	옷을 살 때 내 치수를 말하기가 꺼려진다.
5	원하는 옷이 신체 특정 부위에 딱 낄 때에는 입고 나가기가 두렵다.
6	연예인의 날씬한 몸매를 보면 내 몸매에 불만을 느낀다.
7	나보다 날씬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8	몸매가 좋은 사람을 보면 내 몸매에 자신이 없어진다.
9	나보다 키 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10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를 보면 나와 비교되어 속상하다.
11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12	탈의실에서 주위 사람들이 내 몸을 쳐다볼까 봐 불안하다.
13	모임에 갔을 때 내 몸매에 자신이 없어 불안하다.
14	발표할 때 사람들이 내 몸을 쳐다보는 것이 두렵다.
15	카페에서 커피를 가지러 갈 때 사람들이 내 몸을 쳐다볼까 봐 걱정된다.
16	여름철에 노출이 걱정되어 해수욕장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
17	운동을 할 때 체형이 드러날 것 같아 걱정된다.
18	운동을 할 때 이성의 시선이 의식되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19	댄스나 요가를 할 때 거울에 비친 내 몸매에 불만을 느낀다.
20	사람들이 내 몸을 평가할 것 같아 운동하기가 꺼려진다.
21	이성을 만날 때 치마나 딱 붙는 옷을 입는 것이 두렵다.
22	이성과 함께 있을 때 자신 없는 부위를 가리게 된다.
23	남자친구가 내 몸매를 매력 없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된다.
24	남자친구가 어깨나 허리를 잡으려 할 때 내 몸매에 신경이 쓰인다.
25	다른 사람과 몸매를 비교당하는 것이 두렵다.
26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몸매 관리를 못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불안하다.
27	내 몸매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질까 봐 두렵다.
28	사람들이 내 몸매를 평가하는 것이 두렵다.
29	주위 사람들이 나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할 때 예민해진다.
30	누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 살췐어”라고 먼저 말하곤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카페에서 커피를 가지러 갈 때 사람들이 내 몸을 쳐다볼까 봐 걱정된다’의 문항평균(1.92)과 ‘발표할 때 사람들이 내 몸을 쳐다보는 것이 두렵다’의 문항평균(2.1)이 1에 가까워 이를 삭제하였다. 이를 제외한 문항들의 평균은 2.06~3.58사이로 나타나 측정문항으로써의 기준치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왜도와 첨도가 ± 2 이상인 문항은 삭제를 고려하였는데(엄한주, 2005), 연구결과에 의하면 왜도는 $-0.50 \sim 1.04$, 첨도는 $-1.02 \sim 1.01$ 로 나타나서 측정문항으로써의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1차 예비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상관(r)

문항	인원(명)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상관(r)
문항1	300	3.51	0.91	-0.48	-0.33	0.405
문항2	300	3.29	0.97	-0.08	-0.73	0.432
문항3	299	3.57	0.90	-0.50	0.03	0.472
문항4	295	2.75	1.13	0.22	-0.71	0.631
문항5	300	3.56	0.94	-0.33	-0.47	0.506
문항6	300	3.58	1.06	-0.46	-0.56	0.569
문항7	300	2.93	1.02	0.06	-0.75	0.631
문항8	299	3.25	1.05	-0.21	-0.70	0.570
문항9	299	2.43	1.11	0.47	-0.59	0.234
문항10	300	2.82	1.14	0.12	-0.85	0.651
문항11	300	3.10	1.12	-0.21	-0.81	0.523
문항12	297	2.62	1.06	0.13	-0.68	0.623
문항13	299	2.41	0.96	0.61	0.09	0.720
문항14	299	2.06	0.93	0.70	0.10	0.648
문항15	300	1.92	0.92	1.04	1.01	0.588
문항16	300	2.76	1.17	0.15	-0.88	0.632
문항17	300	2.30	0.91	0.40	-0.32	0.613
문항18	299	2.28	0.92	0.54	-0.02	0.391
문항19	299	2.86	1.01	-0.10	-0.72	0.591
문항20	300	2.23	0.91	0.52	-0.22	0.566
문항21	298	2.59	1.04	0.37	-0.47	0.502
문항22	300	3.24	1.00	-0.20	-0.52	0.571
문항23	300	2.97	1.03	-0.09	-0.67	0.574
문항24	299	3.19	1.10	-0.26	-0.66	0.588
문항25	300	3.15	1.02	-0.14	-0.67	0.693
문항26	300	2.83	1.06	0.16	-0.77	0.688
문항27	300	2.32	1.08	0.50	-0.59	0.599
문항28	300	2.81	1.07	0.00	-0.78	0.727
문항29	300	3.41	0.99	-0.42	-0.33	0.635
문항30	300	2.96	1.20	-0.02	-1.02	0.440

또한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이 0.5이하인 문항은 삭제 대상이었는데(Hart, 1989), 문항 1, 2, 3, 9, 18, 30번이 0.5 이하로 나타났다. 이 중 '옷맵시(핏)가 나지 않을 때에는 나가가 꺼려진다', '몸매를 가리는 옷을 자주 입는다', '노출이 있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염려된다'의 문항은 개방형설문과 심층면담에서 옷과 관련된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문항으로 판단하여 삭제하지 않았다.

(2)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구조와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모형을 적용하여 검사의 요인을 해석하였고 구조계수(factor structure loading) 행렬 값을 기초로 문항을 배정 또는 삭제를 검토하였다.

① 사전공통분 추정

다중상관제곱치(SMC)를 이용하여 추정한 사전공통분은 <표 3>과 같다. 사전공통분추정치(정치가 최소 0.2이상)가 산출되어야 요인분석이 가능하다. 추정된 사전공통분이 0.8이상이면 주성분분석이나 공통요인분석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3. 1차 예비문항의 사전공통분추정치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문항9	문항10
0.27	0.38	0.43	0.49	0.47	0.49	0.59	0.54	0.22	0.49
문항11	문항12	문항13	문항14	문항15	문항16	문항17	문항18	문항19	문항20
0.49	0.58	0.62	0.58	0.58	0.53	0.61	0.40	0.46	0.49
문항21	문항22	문항23	문항24	문항25	문항26	문항27	문항28	문항29	문항30
0.38	0.45	0.50	0.44	0.60	0.65	0.58	0.67	0.54	0.31

<표 3>을 살펴보면 사전공통분추정치가 0.22(문항 9)에서 0.67(문항 28)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가능한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 1, 문항 9 등의 값들이 비교적 작고 자료가 수량자료가 아닌 설문자료이므로 공통요인모형을 적용하였다.

② 요인수 결정

공통요인모형의 축소상관행렬에 대한 단일주축분해 결과로 얻은 고유치(eigenvalue)는 <표 4>와 같다. 고유치의 차이를 살펴보면 6번 요인까지 고유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누적분산비율은 2번 요인부터 최저 기준인 75-85%(Gorsuch, 1983)를 넘지만 6요인까지 약 4%가 증가한다. 따라서 4요인, 5요인, 6요인에 대한 모형을 모두 분석한 후 스크리 검사, 누적분산비율, 그리고 내용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5요인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최종요인구조를 기초로 한 문항구성

<표 5>는 사각회전을 통해 산출한 구조계수(factor structure loading) 행렬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1차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기초로 문항을 재정리한 것이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을 해석하고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구조계수행렬을 사용한다(이순목, 2000; Brogden, 1969; Gorsuch, 1983). 구조계수행렬에서 0.3 또는 0.4이상인 요인계수가 3개 이상 발견되면 독립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여 이름을 부여하였다(Thurstone, 1947). <표 5>를 살펴보면 한 문항에서 0.3이 넘는 요인계수가 여러 개 나타났다. 따라서 먼저 가장 큰 요인계수를 기준으로 각 요인별 문항을 정리한 다음 내용적 해석을 통해 최종요인을 결정

한 후 그에 해당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5개 요인은 공공장소, 개인 간 비교, 타인의 평가, 옷과 체형의 부적합, 이성접촉으로 해석되었다. 문항 21, 문항 25, 문항 29, 문항 30의 요인계수 값은 전반적으로 2-3개 요인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내용적 해석을 통해 <표 5>와 같이 최종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표 4. 1차 예비문항의 고유치

	고유치	차이	분산비율	누적분산비율
1	9.81	8.29	0.66	0.66
2	1.52	0.37	0.10	0.76
3	1.15	0.08	0.08	0.84
4	1.06	0.36	0.07	0.91
5	0.71	0.19	0.05	0.96
6	0.52	0.04	0.03	1.00
7	0.48	0.06	0.03	1.03
8	0.42	0.06	0.03	1.06
9	0.36	0.11	0.02	1.08
10	0.24	0.06	0.02	1.10
11	0.19	0.05	0.01	1.11
12	0.14	0.02	0.01	1.12
13	0.11	0.12	0.01	1.13
14	0.10	0.06	0.01	1.13
15	0.04	0.04	0.00	1.13
16	-0.01	0.01	-0.00	1.13
17	-0.02	0.02	-0.00	1.13
18	-0.04	0.01	-0.00	1.13
19	-0.05	0.01	-0.00	1.13
20	-0.07	0.02	-0.00	1.12
21	-0.09	0.04	-0.01	1.12
22	-0.12	0.02	-0.01	1.11
23	-0.14	0.01	-0.01	1.10
24	-0.15	0.02	-0.01	1.09
25	-0.18	0.01	-0.01	1.08
26	-0.19	0.01	-0.01	1.06
27	-0.20	0.02	-0.01	1.05
28	-0.23	0.02	-0.02	1.03
29	-0.25	0.02	-0.02	1.02
30	-0.26	.	-0.02	1.00

표 5. 1차 예비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계수				
		1	2	3	4	5
공공 장소	11.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0.56	0.43	0.21	0.41	0.38
	12. 탈의실에서 주위 사람들이 내 몸을 쳐다볼까 봐 불안하다.	0.64	0.54	0.30	0.54	0.39
	13. 모임에 갔을 때 내 몸매에 자신이 없어 불안하다.	0.73	0.63	0.60	0.45	0.38
	14. 발표할 때 사람들이 내 몸을 쳐다보는 것이 두렵다.	0.66	0.55	0.53	0.51	0.19
	15. 카페에서 커피를 가지러 갈 때 사람들이 내 몸을 쳐다볼까봐 걱정된다.	0.67	0.52	0.52	0.41	0.12
	16. 여름철에 노출이 걱정되어 해수욕장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	0.68	0.44	0.39	0.46	0.39
	17. 운동을 할 때 체형이 드러날 것 같아 걱정된다.	0.75	0.40	0.50	0.34	0.23
	18. 운동을 할 때 이성의 시선이 의식되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0.55	0.20	0.27	0.11	0.12
	19. 댄스나 요가를 할 때 거울에 비친 내 몸매에 불만을 느낀다.	0.57	0.48	0.51	0.30	0.40
	20. 사람들이 내 몸을 평가할 것 같아 운동하기가 꺼려진다.	0.66	0.36	0.54	0.25	0.29
개인간 비교	6. 연예인의 날씬한 몸매를 보면 내 몸매에 불만을 느낀다.	0.36	0.67	0.40	0.44	0.44
	7. 나보다 날씬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0.49	0.77	0.50	0.37	0.41
	8. 몸매가 좋은 사람을 보면 내 몸매에 자신이 없어진다.	0.43	0.73	0.36	0.35	0.41
	9. 나보다 키 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0.18	0.35	0.11	0.02	-0.01
	10.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를 보면 나와 비교되어 속상하다.	0.52	0.64	0.58	0.48	0.37
타인의 평가	25. 다른 사람과 몸매를 비교당하는 것이 두렵다.	0.52	0.62	0.67	0.48	0.69
	26.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몸매 관리를 못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불안하다.	0.57	0.51	0.79	0.52	0.53
	27. 내 몸매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질까 봐 두렵다.	0.47	0.47	0.73	0.46	0.33
	28. 사람들이 내 몸매를 평가하는 것이 두렵다.	0.64	0.54	0.81	0.51	0.53
	29. 주위 사람들이 나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할 때 예민해진다.	0.51	0.49	0.60	0.46	0.61
30. 누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 살췐어”라고 먼저 말하곤 한다.	0.31	0.35	0.39	0.29	0.42	
옷과 체형의 부적합	1. 옷맵시(핏)가 나지 않을 때에는 나가기가 꺼려진다.	0.29	0.34	0.19	0.43	0.37
	2. 몸매를 가리는 옷을 자주 입는다.	0.28	0.27	0.35	0.61	0.32
	3. 노출이 있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염려된다.	0.34	0.32	0.27	0.66	0.36
	4. 옷을 살 때 내 치수를 말하기가 꺼려진다.	0.53	0.40	0.60	0.61	0.38
	5. 원하는 옷이 신체 특정 부위에 꼭 걸 때에는 입고 나가기가 두렵다.	0.32	0.35	0.43	0.68	0.44
이성 접촉	21. 이성을 만날 때 치마나 딱 붙는 옷을 입는 것이 두렵다.	0.52	0.28	0.36	0.48	0.23
	22. 이성과 함께 있을 때 자신 없는 부위를 가리게 된다.	0.49	0.42	0.36	0.54	0.58
	23. 남자친구가 내 몸매를 매력 없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된다.	0.44	0.53	0.39	0.44	0.58
	24. 남자친구가 어깨나 허리를 잡으려 할 때 내 몸매에 신경이 쓰인다.	0.44	0.46	0.44	0.51	0.61

(3) 문항 수정 및 삭제

문항분석 결과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전문가 회의를 기초로 30개의 예비문항 중 8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표 6>은 1차 예비문항에서 삭제된 문항과 그 근거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1차 예비문항의 삭제 문항

문항	삭제 근거
9. 나보다 키 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이 0.23
14. 발표할 때 사람들이 내 몸을 쳐다보는 것이 두렵다.	문항 평균이 2.06
15. 카페에서 커피를 가지러 갈 때 사람들이 내 몸을 쳐다볼까 봐 걱정된다.	문항 평균이 1.92
18. 운동을 할 때 이성의 시선이 의식되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이 0.40 여대생들 대부분이 실제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 및 신체활동과 관련된 문항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0. 사람들이 내 몸을 평가할 것 같아 운동하기가 꺼려진다.	여대생들 대부분이 실제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 및 신체활동과 관련된 문항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4. 남자친구가 어깨나 허리를 잡으려 할 때 내 몸매에 신경이 쓰인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
27. 내 몸매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질까 봐 두렵다.	여대생들은 면접 상황에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면접과 관련된 문항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30. 누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 살췐어”라고 먼저 말하곤 한다.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이 0.44

4) 2차 예비조사

22개의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여자 대학생 11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상관을 산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와 문항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다. 또한 체육측정평가와 스포츠심리학 박사급 전공자 4명, 체육측정평가 전공자 3명으로 총 7명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16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표 7>은 2차 예비문항을 나타낸 것이다.

표 7. 2차 예비문항

번호	문항
1	몸매를 가리는 옷을 자주 입는다.
2	나보다 날씬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3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4	이성과 데이트 할 때 내 몸매에 신경이 쓰인다.
5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몸매 관리를 못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된다.
6	옷맵시(핏)가 나지 않을 때에는 나가기가 꺼려진다.
7	연예인의 날씬한 몸매를 보면 내 몸매에 불만을 느낀다.
8	댄스나 요가를 할 때 거울에 비친 내 몸매에 불만을 느낀다.
9	이성과 함께 있을 때 자신 없는 신체 부위를 가리게 된다.
10	사람들이 내 몸매를 평가하는 것이 두렵다.
11	옷을 살 때 내 치수를 말하기가 꺼려진다.
12	몸매가 좋은 사람을 보면 내 몸매에 자신이 없어진다.
13	탈의실에서 주위 사람들이 내 몸을 쳐다볼까 봐 걱정된다.
14	이성이 내 몸매를 매력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된다.
15	다른 사람과 몸매를 비교당하는 것이 두렵다.
16	운동을 할 때 체형이 드러날 것 같아 걱정된다.
17	노출이 있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염려된다.
18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를 보면 나와 비교되어 속상하다.
19	여름철에 노출이 걱정되어 해수욕장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
20	주위 사람들이 나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할 때 예민해진다.
21	원하는 옷이 신체 특정 부위에 꼭 낄 때에는 입고 나가기가 두렵다.
22	모임에 갔을 때 내 몸매에 자신이 없어 불안하다.

(1) 문항분석

<표 8>은 2차 예비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상관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평균이 1에 가깝거나 5에 가까운 문항과 표준편차가 0.1이하인 문항은 삭제 대상이었다(탁진국, 2000). 전체적인 문항 평균은 2.27~3.49사이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전부 0.1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문항으로써의 기준치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왜도와 첨도가 ± 2 이상인 문항은 삭제를 고려하였는데(엄한주, 2005), <표 8>을 살펴보면 왜도는 -0.66~0.55, 첨도는 -0.75~0.30으로 나타나서 측정문항으로써의 기준치를 만족하였다. 또한 각 문항과 전체 문항 총점 간의 상관이 0.5이하인 문항은 삭제 대상이었는데(Hart, 1989), 문항 1, 3, 6, 7, 8, 9번이 0.5이하로 나타났다.

표 8. 2차 예비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상관(r)

문항	인원(명)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상관(r)
문항1	110	3.33	0.97	-0.58	0.10	0.445
문항2	110	2.83	0.95	0.42	-0.17	0.554
문항3	110	3.16	0.96	-0.27	-0.68	0.439
문항4	110	3.40	0.96	-0.26	-0.53	0.542
문항5	110	2.82	0.97	0.25	-0.37	0.665
문항6	110	3.22	1.04	-0.10	-0.73	0.430
문항7	110	3.49	1.07	-0.66	-0.18	0.378
문항8	110	3.10	0.96	-0.27	-0.35	0.459
문항9	110	3.25	0.99	-0.28	-0.33	0.423
문항10	110	2.92	1.00	0.22	-0.45	0.618
문항11	110	2.65	1.02	0.53	-0.43	0.621
문항12	110	3.27	0.84	-0.37	-0.26	0.594
문항13	110	2.47	0.86	0.22	-0.60	0.594
문항14	110	2.84	0.96	0.34	-0.23	0.621
문항15	110	2.92	0.87	-0.01	-0.51	0.684
문항16	110	2.51	0.85	0.51	-0.18	0.563
문항17	110	3.28	0.95	-0.33	-0.25	0.521
문항18	110	2.76	1.02	0.07	-0.56	0.525
문항19	110	2.59	1.03	0.27	-0.40	0.653
문항20	110	3.08	1.07	-0.30	-0.75	0.607
문항21	110	3.22	0.96	-0.52	0.04	0.550
문항22	110	2.27	0.91	0.55	0.30	0.639

이 문항들 중 ‘몸매를 가리는 옷을 자주 입는다’, ‘옷맵시(핏)가 나지 않을 때에는 나가기가 꺼려진다’의 문항은 개방형설문과 심층면담에서 옷과 관련된 반응이 많이 나타나 여대생들이 옷을 입을 때 불안을 많이 경험한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타인이 존재하는 공공장소와 관련된 문항으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회적 체형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지 않았다. 또한 ‘연예인의 날씬한 몸매를 보면 내 몸매에 불만을 느낀다’는 많은 여대생들이 공감하는 문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삭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구조와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모형을 적용하여 검사의 요인을 해석하였고 구조계수(factor structure loading) 행렬 값을 기초로 문항을 배정 또는 삭제를 검토하였다.

① 사전공통분 추정

다중상관계수(SMC)를 이용하여 추정한 사전공통분은 <표 9>와 같다.

표 9. 2차 예비문항의 사전공통분추정치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문항9	문항10	문항11
0.49	0.52	0.42	0.46	0.50	0.30	0.38	0.43	0.26	0.52	0.58
문항12	문항13	문항14	문항15	문항16	문항17	문항18	문항19	문항20	문항21	문항22
0.46	0.50	0.48	0.56	0.55	0.50	0.47	0.46	0.44	0.48	0.50

사전공통분추정치가 최소 0.2이상인 문항이 산출되어야 요인분석이 가능한데 <표 9>를 살펴보면 사전공통분추정치가 0.26(문항 9)에서 0.58(문항 1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서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 6, 문항 9 등의 값들이 비교적 작고 자료가 수량자료가 아닌 설문자료이므로 공통요인모형을 적용하였다.

② 요인수 결정

공통요인모형의 축소상관행렬에 대한 단일주축분해 결과로 얻은 고유치(eigenvalue)는 <표 10>과 같다.

표 10. 2차 예비문항의 고유치

	고유치	차이	분산비율	누적분산비율
1	6.45	5.04	0.63	0.63
2	1.41	0.44	0.14	0.77
3	0.97	0.22	0.09	0.86
4	0.75	0.20	0.07	0.93
5	0.55	0.05	0.05	0.99
6	0.49	0.06	0.05	1.03
7	0.43	0.08	0.04	1.08
8	0.35	0.15	0.03	1.11
9	0.20	0.05	0.02	1.13
10	0.15	0.09	0.01	1.14
11	0.06	0.01	0.01	1.15
12	0.05	0.04	0.00	1.15
13	0.01	0.04	0.00	1.15
14	-0.03	0.05	-0.00	1.15
15	-0.08	0.04	-0.01	1.14
16	-0.12	0.03	-0.01	1.13
17	-0.16	0.01	-0.02	1.12
18	-0.17	0.04	-0.02	1.10
19	-0.21	0.05	-0.02	1.08
20	-0.26	0.01	-0.03	1.05
21	-0.27	0.01	-0.03	1.03
22	-0.28	.	-0.03	1.00

고유치의 차이를 살펴보면 5번 요인까지 고유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누적분산비율은 2번 요인부터 최저 기준인 75-85%(Gorsuch, 1983)를 넘지만 5요인까지 약 6%가 증가한다. 따라서 3요인, 4요인, 5요인에 대한 모형을 모두 분석한 후 스크리 검사, 누적분산비율, 그리고 내용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3요인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최종요인구조를 기초로 한 문항구성

<표 11>은 사각회전을 통해 산출한 구조계수 행렬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2차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기초로 문항을 재정리한 것이다. 구조계수행렬에서 0.3 또는 0.4이상인 요인계수가 3개 이상 발견되면 독립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여 이름을 부여하였다(Thurstone, 1947). <표 11>을 살펴보면 한 문항에서 0.3이 넘는 요인계수가 여러 개 나타났다. 따라서 먼저 가장 큰 요인계수를 기준으로 각 요인별 문항을 정리한 다음 내용적 해석을 통해 최종 요인을 결정한 후 그에 해당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전에 5개로 해석되었던 요인이 <표 11>에서와 같이 3개의 요인 즉, 타인평가 불안, 자기평가 불안, 의복관련 불안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타인평가 요인과 공공장소 요인이 하나로 묶였고, 이성접촉 요인과 개인 간 비교 요인이 하나로 묶였기 때문이다. 문항 5, 문항 6, 문항 18, 문항 19의 요인계수 값은 전반적으로 2-3개 요인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내용적 해석을 통해 <표 11>과 같이 최종 요인으로 해석하였다.

표 11. 2차 예비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계수		
		1	2	3
타인 평가 불안	3.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0.47	0.31	0.25
	5.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몸매 관리를 못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된다.	0.59	0.63	0.40
	10. 사람들이 내 몸매를 평가하는 것이 두렵다.	0.60	0.40	0.57
	13. 탈의실에서 주위 사람들이 내 몸을 쳐다볼까 봐 걱정된다.	0.71	0.36	0.37
	14. 이성이 내 몸매를 매력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된다.	0.64	0.47	0.38
	15. 다른 사람과 몸매를 비교당하는 것이 두렵다.	0.66	0.55	0.50
	16. 운동을 할 때 체형이 드러날 것 같아 걱정된다.	0.71	0.30	0.38
	19. 여름철에 노출이 걱정되어 해수욕장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	0.53	0.51	0.61
	20. 주위 사람들이 나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할 때 예민해진다.	0.59	0.49	0.37
	22. 모임에 갔을 때 내 몸매에 자신이 없어 불안하다.	0.61	0.54	0.38
자기 평가 불안	2. 나보다 날씬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0.33	0.60	0.40
	4. 이성과 데이트 할 때 내 몸매에 신경이 쓰인다.	0.38	0.63	0.23
	7. 연예인의 날씬한 몸매를 보면 내 몸매에 불만을 느낀다.	0.17	0.54	0.09
	8. 댄스나 요가를 할 때 거울에 비친 내 몸매에 불만을 느낀다.	0.38	0.52	0.08
	9. 이성과 함께 있을 때 자신 없는 신체 부위를 가리게 된다.	0.29	0.45	0.27
	12. 몸매가 좋은 사람을 보면 내 몸매에 자신이 없어진다.	0.38	0.66	0.36
18.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를 보면 나와 비교되어 속상하다.	0.49	0.42	0.42	
의복 관련 불안	1. 몸매를 가리는 옷을 자주 입는다.	0.28	0.22	0.67
	6. 옷맵시(핏)가 나지 않을 때에는 나가기가 꺼려진다.	0.19	0.49	0.24
	11. 옷을 살 때 내 치수를 말하기가 꺼려진다.	0.61	0.38	0.65
	17. 노출이 있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염려된다.	0.53	0.23	0.62
	21. 원하는 옷이 신체 특정 부위에 꼭 낄 때에는 입고 나가기가 두렵다.	0.39	0.38	0.67

(3) 문항수정 및 삭제

문항분석 결과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전문가 회의를 기초로 24개의 예비문항 중 6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표 12>는 2차 예비문항에서 삭제한 문항과 그 근거를 나타낸 것이다.

표 12. 2차 예비문항의 삭제 문항

문항	삭제 근거
8. 댄스나 요가를 할 때 거울에 비친 내 몸매에 불만을 느낀다.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이 0.46
9. 이성과 함께 있을 때 자신 없는 신체 부위를 가리게 된다.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이 0.42
13. 탈의실에서 주위 사람들이 내 몸을 쳐다볼까 봐 걱정된다.	탈의실은 잠깐 동안 몸에 신경 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 비해 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16. 운동을 할 때 체형이 드러날 것 같아 걱정된다.	여대생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과 관련된 문항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19. 여름철에 노출이 걱정되어 해수욕장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	3번 문항인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의 문항과 유사함
22. 모임에 갔을 때 내 몸매에 자신이 없어 불안하다.	'모임'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불안하다'는 표현이 다른 문항에 비해 감정표현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3. 본 검사지 개발

최종 완성된 16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본조사, 타당도 검증,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검사지를 개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은 최종 완성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 불안 척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3.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

번호	문항
1	사람들이 내 몸매를 평가하는 것이 두렵다.
2	나보다 날씬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3	몸매를 가리는 옷을 자주 입는다.
4	다른 사람과 몸매를 비교당하는 것이 두렵다.
5	몸매가 좋은 사람을 보면 내 몸매에 자신이 없어진다.
6	옷맵시(핏)가 나지 않을 때에는 나가기가 꺼려진다.
7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몸매 관리를 못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된다.
8	이성과 데이트 할 때 내 몸매에 신경이 쓰인다.
9	옷을 살 때 내 치수를 말하기가 꺼려진다.
10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11	연예인의 날씬한 몸매를 보면 내 몸매에 불만을 느낀다.
12	노출이 있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염려된다.
13	이성이 내 몸매를 매력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된다.
14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를 보면 나와 비교되어 속상하다.
15	원하는 옷이 신체 특정 부위에 꼭 낄 때에는 입고 나가기가 두렵다.
16	주위 사람들이 나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할 때 예민해진다.

1) 본조사

16개의 최종 문항을 대상으로 여자 대학생 13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1)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구조와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였다. 공통요인모형을 적용하여 검사의 요인을 해석하였고 구조계수 행렬 값을 기초로 문항을 배정 또는 삭제 검토하였다.

① 사전공통분 추정

다중상관관계치(SMC)를 이용하여 추정한 사전공통분은 <표 14>와 같다. <표 14>를 살펴보면 사전공통분추정치가 0.26(문항 9)에서 0.55(문항 1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서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 6, 문항 11 등의 값들이 비교적 작고 자료가 수량자료가 아닌 설문자료이므로 공통요인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14.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 16문항의 사전공통분추정치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0.49	0.44	0.45	0.51	0.45	0.27	0.48	0.36
문항9	문항10	문항11	문항12	문항13	문항14	문항15	문항16
0.55	0.39	0.26	0.41	0.41	0.45	0.42	0.37

② 요인수 결정

공통요인모형의 축소상관행렬에 대한 단일주축분해 결과로 얻은 고유치(eigenvalue)는 <표 15>와 같다.

표 15.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고유치

	고유치	차이	분산비율	누적분산비율
1	4.66	3.55	0.69	0.69
2	1.10	0.44	0.16	0.86
3	0.66	0.05	0.10	0.96
4	0.61	0.17	0.09	1.05
5	0.44	0.21	0.07	1.11
6	0.23	0.08	0.03	1.15
7	0.15	0.05	0.02	1.17
8	0.10	0.10	0.01	1.18
9	0.00	0.05	0.00	1.19
10	-0.05	0.05	-0.01	1.18
11	-0.11	0.05	-0.02	1.16
12	-0.15	0.03	-0.02	1.14
13	-0.18	0.04	-0.03	1.11
14	-0.22	0.02	-0.03	1.08
15	-0.24	0.07	-0.04	1.05
16	-0.31	.	-0.05	1.00

<표 15>에서 고유치의 차이를 살펴보면 3번 요인까지 고유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누적분산비율은 2번 요인부터 최저 기준인 75-85%(Gorsuch, 1983)를 넘지만 3요인까지 약 10%가 증가한다. 따라서 2요인, 3요인, 4요인에 대한 모형을 모두 분석한 후 스크리 검사, 누적분산비율, 그리고 내용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3요인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최종요인구조를 기초로 한 문항구성

<표 16>은 사각회전을 통해 산출한 구조계수 행렬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요인구조를 기초로 문항을 재정리한 것이다. 구조계수행렬에서 0.3 또는 0.4이상인 요인계수가 3개 이상 발견되면 독립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여 이름을 부여하였다(Thurstone, 1947). <표 16>을 살펴보면 한 문항에서 0.3이 넘는 요인계수가 여러 개 나타났다. 따라서 먼저 가장 큰 요인계수를 기준으로 각 요인별 문항을 정리한 다음 내용적 해석을 통해 최종요인을 결정한 후 그에 해당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16>을 살펴보면 3개 요인은 자기평가 불안, 의복관련 불안, 타인평가 불안으로 해석되었다. 문항 1, 문항 6, 문항 7, 문항 10, 문항 14의 요인계수 값은 전반적으로 2-3개 요인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내용적 해석을 통해 <표 16>과 같이 최종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2) 내적일관성 신뢰도

16개의 최종 문항을 대상으로 여대생 13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한 후 수집된 자료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타인평가 불안 요인에서 Cronbach의 알파 계수는 .79, 자기평가 불안 요인은 .70, 의복관련 불안 요인은 .69로 나타났다. 전체문항의 Cronbach의 알파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과 전체문항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가 모두 .70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6>은 문항 삭제 시 신뢰도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요인계수 값이 낮게 나타난 6문항(.20), 10문항(.27), 14문항(.32)을 삭제했을 시 신뢰도 계수의 차이가 없어 삭제 없이 16문항을 채택하였다.

표 16.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문항	요인계수			평균	표준 편차	해당문항 삭제시 신뢰도
		1	2	3			
타인 평가 불안	1. 사람들이 내 몸매를 평가하는 것이 두렵다.	0.57	0.42	0.62	2.94	0.99	.86
	4. 다른 사람과 몸매를 비교당하는 것이 두렵다.	0.70	0.56	0.51	2.95	0.90	.86
	7.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몸매 관리를 못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된다.	0.57	0.66	0.45	2.78	0.98	.86
	10.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0.27	0.40	0.38	3.18	0.97	.87
	13. 이성이 내 몸매를 매력 없다고 생각할 것 같 아 걱정된다.	0.60	0.48	0.43	2.85	0.98	.86
	16. 주위 사람들이 나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할 때 예민해진다.	0.62	0.43	0.38	3.15	1.05	.86
자기 평가 불안	2. 나보다 날씬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0.33	0.65	0.40	2.91	0.97	.86
	5. 몸매가 좋은 사람을 보면 내 몸매에 자신이 없어진다.	0.47	0.68	0.31	3.31	0.89	.86
	8. 이성과 데이트 할 때 내 몸매에 신경이 쓰인 다.	0.40	0.59	0.25	3.40	0.95	.86
	11. 연예인의 날씬한 몸매를 보면 내 몸매에 불 만을 느낀다.	0.19	0.47	0.09	3.43	1.10	.87
	14.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를 보면 나와 비교되 어 속상하다.	0.67	0.32	0.34	2.78	1.03	.87
의복 관련 불안	3. 몸매를 가리는 옷을 자주 입는다.	0.25	0.25	0.64	3.27	1.00	.87
	6. 옷맵시(핏)가 나지 않을 때에는 나가지가 꺼려 진다.	0.26	0.50	0.20	3.25	1.02	.87
	9. 옷을 살 때 내 치수를 말하기가 꺼려진다.	0.50	0.42	0.72	2.62	1.01	.86
	12. 노출이 있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사 람들의 시선이 염려된다.	0.45	0.23	0.62	3.32	0.93	.86
	15. 원하는 옷이 신체 특정 부위에 꼭 낄 때에는 입고 나가지가 두렵다.	0.52	0.31	0.57	3.28	0.97	.86

2) 타당도 검증

(1) 구인타당도 검증

구인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새로운 독립된 표본 185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가설모형으로 하여 자료와 모형의 합치도를 확인하였다. <표 17>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17. 3요인 모형의 모수추정치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측정오차분산	문항의 SMC
문항1	0.70 (9.60)	--	--	0.51 (7.53)	0.49
문항2	--	0.70 (9.26)	--	0.51 (7.39)	0.49
문항3	--	--	0.64 (8.32)	0.59 (7.48)	0.41
문항4	0.79 (11.10)	--	--	0.41 (6.99)	0.59
문항5	--	0.81 (11.34)	--	0.36 (6.28)	0.64
문항6	--	--	0.35 (4.25)	0.85 (8.36)	0.15
문항7	0.70 (9.60)	--	--	0.48 (7.43)	0.52
문항8	--	0.65 (8.36)	--	0.58 (7.70)	0.42
문항9	--	--	0.57 (7.24)	0.65 (7.77)	0.35
문항10	0.52 (6.59)	--	--	0.74 (8.25)	0.26
문항11	--	0.62 (7.93)	--	0.63 (7.88)	0.37
문항12	--	--	0.66 (8.39)	0.62 (7.61)	0.38
문항13	0.66 (8.89)	--	--	0.56 (7.76)	0.44
문항14	--	0.62 (7.90)	--	0.60 (7.80)	0.40
문항15	--	--	0.51 (6.43)	0.70 (7.93)	0.30
문항16	0.49 (6.14)	--	--	0.76 (8.28)	0.24

()안은 t값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3요인 모형은 1차 분석 결과 X^2 값이 413.34으로 나타났다는데, MI(modification index)값을 확인한 결과 12번 문항과 4번 문항 간의 MI값이

35.03이었다(보통 10을 초과하면 수정대상). 두 문항간 상관을 자유모수로 하여 모형을 수정한 결과 χ^2 값이 343.99로 약 70정도 줄어들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요인계수 t값의 절대값이 모두 2를 초과하므로 요인구조에 대체로 적절한 측정변수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오차 분산의 t값 역시 모두 크게 나타나 고유분산을 0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분석자료에 대하여 주성분분석이 아닌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한 것이 적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상관제곱치 (SMC)는 변수의 신뢰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문항 6번이 낮게 나타나 문항 수정이 요구되지만 내용적 해석을 통해 기존 문항으로 포함하였다.

<표 18>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자료와 모형의 합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RMR(0.08)과 RMSEA(0.13)이 기준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다른 합치도는 전반적으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체형불안의 3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는 최종모형의 경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8.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자료와 모형의 합치도

지수	1차 모형	수정 모형	기준값
χ^2	413.34	343.99	좋은 합치도 기준을 말하기 어려움
NNFI	0.86	0.88	0.9이상이면 좋은 합치
NFI	0.85	0.87	0.9이상이면 좋은 합치
GFI	0.74	0.78	0.9이상이면 좋은 합치
AGFI	0.65	0.71	특별한 기준은 없음. GFI보다 작은 것
RMR	0.09	0.08	분석자료가 상관행렬일 때 0.05이하
RMSEA	0.14	0.13	0.05이하(0.08이하도 무난함)
PNFI	0.72	0.72	이론적 최고 합치는 1.0
PGFI	0.55	0.57	이론적 최고 합치는 1.0
CFI	0.88	0.90	0.9이상이면 좋은 합치
ECVI	3.24	2.79	이론적 최고 합치는 0

(2) 준거타당도 검증

최종 완성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를 대상으로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를 확인하였다. 검사-준거 관련성(test-criterion relationship)은 여대생 42명을 대상으로 기존 Hart 등(1989)이 제작한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를 동시에 실시하여 두 검사간 관련성을 상관계수(r)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 값이 0.82로 나타나 두 검사간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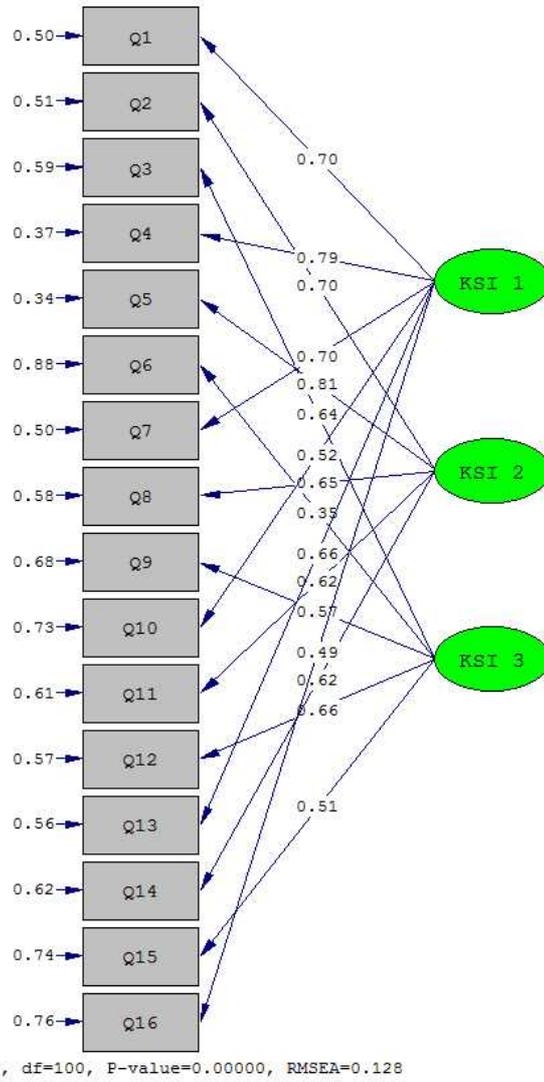


그림 4.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모형의 경로도

3) 신뢰도 검증

(1) 내적일관성 신뢰도

16개의 최종 문항을 대상으로 독립된 여대생 185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얻어진 자료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알아본 결과 타인평가 불안 요인에서 Cronbach의 알파 계수는 .83, 자기평가 불안 요인은 .81, 의복관련 불안 요인은 .72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문항의 Cronbach의 알파 계수는 .91로 나타나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재검사 신뢰도

최종 완성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가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대생 43명을 대상으로 1차 검사를 하고 4주 후 2차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를 살펴보면 재검사 신뢰도가 $r=.83\sim.86$ 의 범위로 나타나 검사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9. 검사와 재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재검사 신뢰도(r) (n=43)

요인	검사점수	재검사점수	r
타인평가 불안	3.11(0.68)	3.28(0.79)	.83
자기평가 불안	3.21(0.83)	3.24(0.75)	.85
의복관련 불안	3.22(0.85)	3.13(0.71)	.86
전체 문항	3.18(0.72)	3.21(0.67)	.91

V. 논의

지난 20년간 사회적 체형불안을 주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Hart 등(1989)에 의해 개발된 SPAS를 사용하였다. 그동안 이 척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존 SPAS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긴 했으나 단순히 SPAS를 번안하거나 몇 문항을 삭제하는 데에 그쳤고(구본철, 2004; Martin et al., 1997; Motl & Conroy, 2000), 그밖에 새로 개발된 척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차별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박인혜, 2010).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체형불안은 서양의 사회적 체형불안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연구들(김남재, 2000; 송지연, 박기환, 2009)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들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체형불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다 요인으로 구성된 한국 문화에 적용 가능한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대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여대생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외모에 민감하고,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체형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과 두 차례의 예비조사와 탐색적 요인분석, 타당도 검증, 신뢰도 검증을 거쳐 자기평가 불안, 타인평가 불안, 의복관련 불안의 3요인을 포함하는 16문항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는 기존 SPAS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려 하였다.

Hart 등(1989)에 의해 개발된 SPAS는 체형 표현 편안함, 부정적인 체형평가 예상의 2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 체형불안에 대한 개념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체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질문한 것과 부정적으로 질문한 것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요인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 연구자들이 SPAS는 실질적으로 단일요인 척도이고, 사회적 체형불안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혔다(박인혜, 2010; Motl & Conroy, 2000). 반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자신의 체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여 불안을 느끼는 자기평가 불안(내재적, 개인내), 타인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관해 불안을 느끼는 타인평가 불안(외재적, 개인간),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불안을 느끼는 의복관련 불안의 다요인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체형불안을 구체화하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기존 SPAS는 단순히 한 대학의 남녀 학생만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국 여대생 1,035명을

대상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에 대해 더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기존 SPAS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한국 여대생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불안상황인 의복관련 불안 요인을 포함시켰다.

박인혜(2010)에 의해 개발된 중년여성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는 사회적 회피, 신체적 표현 불만족, 부정적 체형평가의 3요인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기존 SPAS를 단순히 변안하거나 수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의식과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와 유사하다. 또한 중년여성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던 사회적 회피 요인을 포함하였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에서도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던 의복관련 불안 요인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하지만 중년여성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는 사회적 회피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2요인이 기존 SPAS의 요인과 동일하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기존 SPAS와 다른 3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중년여성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는 각 요인의 문항이 3개로 구성되어 측정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충분하지 못하다는(김용국, 성장훈, 2007)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각 요인의 문항이 5~6개로 구성되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김보경(2006)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체형불안의 경험 상황 즉, 옷과 체형의 부적합, 모임에서 타인과 대면했을 때, 낯선/이상적인 타인과 비교될 때, 타인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자신의 신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때, 성적인 접촉을 할 때를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옷과 체형의 부적합과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자신의 신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때를 바탕으로 의복관련 불안과 타인평가 불안, 자기평가 불안을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모임에서 타인과 대면했을 때와 성적인 접촉을 할 때에 관련된 반응은 여대생에게 거의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 중 30~50대는 모임을 자주 가므로 모임에서 타인과 대면했을 때와 관련된 반응이 많이 나타난 반면 여대생들은 모임 보다는 커피숍, 식당 등의 공공장소에 많이 가기 때문에 모임과 관련된 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혼여성이 많은 30~40대에서는 이성과의 성적인 접촉을 할 때와 관련된 반응이 많이 나타난 반면 여대생들은 기혼여성들에 비해 이성과의 접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선(2008)의 연구에서는 기존 SPAS는 사회적 체형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려 하였다. SPAS의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나는 남들이 내 몸매와 외모를 평가한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몸을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편안한

느낌을 갖는다', '나는 거울을 볼 때 내 몸매에 대해 기분 좋은 느낌을 받는다'등 사회적 체형불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일반적인 문항들은 사용하지 않으려 했고 '사람들이 내 몸매를 평가하는 것이 두렵다', '원하는 옷이 신체 특정 부위에 꼭 낄 때에는 입고 나가기가 두렵다'와 같이 사회적 체형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Scott 등(2004)등의 연구에서는 기존 SPAS는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체형불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신체 불만족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이성과 데이트 할 때 내 몸매에 신경이 쓰인다', '주위 사람들이 나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할 때 예민해진다'와 같이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체형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여대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와 내용들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여대생들은 이성에게 관심이 많으므로 '이성과 데이트 할 때 내 몸매에 신경이 쓰인다'와 같이 이성과 관련된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여대생들은 옷을 입는 것과 관련해 불안을 많이 경험하므로 '몸매를 가리는 옷을 자주 입는다'와 같이 의복과 관련된 문항들을 다수 작성하였다. 또한 여대생들은 맵시 보다 핏이라는 단어에 친숙해했기 때문에 이들이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맵시(핏)으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과체중인 대상에만 치우치지 않고 저체중인 대상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대상들의 불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려하였다. 즉, 자신이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체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회적 체형불안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몸매를 가리는 옷을 자주 입는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등과 같이 비만과 저체중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최종 완성된 척도에서 문항 1, 문항 6, 문항 7, 문항 10, 문항 14는 요인계수 값이 낮지만 내용적 해석을 통해 필요한 문항이라고 판단하여 최종 문항에 포함하였다. 향후 이 검사지의 타당화 연구가 수행된다면 해당 문항에 대한 수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다요인으로 구성하여 사회적 체형불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였다. 이것은 기존 SPAS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체형불안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여대생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불안상황인 의복관련 불안 요인을 포함시켜 기존에 개발된 척도들에서 다루지 못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의식과 문화를 반영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의식과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대생 1,03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을 통해 요인을 선정하고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문항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전문가회의를 거쳐 문항을 수정하였다.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문항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문항을 작성하였다. 최종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검사지를 확정하다. 최종 확정된 검사지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상관계수와 신뢰계수 알파를 산출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1)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16문항 3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3요인이 '타인평가 불안', '자기평가 불안', 그리고 '의복관련 불안'으로 해석되었다.

2)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6문항 3요인 모형이 자료와 모형의 적합지수 중 RMR과 RMSEA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내적 구조에 기초한 타당한 근거가 확인되었다.

3)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와 Hart 등(1989)이 제작한 SPAS를 동시에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 r 값이 0.82로 나타나서 두 검사 간의 유사성이 드러나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기초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모든 요인에서 신뢰계수 값 $\alpha=.72\sim.83$ 으로 나타나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재검사 신뢰도 결과도 요인별로 상관계수 값이 $r=.83\sim.86$ 의 범위로 나타나 검사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상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다른 성별이나 연령대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성별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지만 본 연구는 여대생의 체형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이므로 지역별 체형불안 차이는 연구주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지역별 사회적 체형불안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남재(2000).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 모형 고찰. *사회과학연구*, 6(1), 25-45.
- 김보경(2006). 건강운동 참가 여성의 사회적 체형불안 체험 특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천 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김성곤(2000). *심리검사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용국, 성장훈(2007). 지체장애인의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5(3), 27-50.
- 김울(2008). *사회인지이론에 의한 초등학생의 레저시간 운동량 관련요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광주.
- 김인숙, 유현희, 현혜숙(2002). 충남지역 대학생의 영양지식, 식태도, 식습관 및 생활습관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7(1), 45-47.
- 김종우(2011). *교양체육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체형불안이 참여 동기와 운동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지윤(2012). *초등학생 환경태도 측정 도구의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김현숙, 정상훈(2011). 직업무용수의 신체상 자기지각차이가 사회적 체형불안 및 공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지*, 68, 67-86.
- 도현경(2013). *여자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과 섭식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체형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인혜(2010). *중년여성의 사회적 체형불안과 운동동기 및 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울.
- 설현수(2007). Messick의 타당도 관점에서 Rasch 측정모형 적용을 통한 대학 강의평가 도구개발의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20(4), 31-51.
- 성은미(2010). *태교무용 참여에 따른 임신부의 분만 자신감 및 사회적 체형불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서울.
- 송지연, 박기환(2009). 가해염려형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변인: 체면, 눈치, 문화적 자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4(2), 329-343.
- 신현경, 박범영, 김상엽, 이종복, 김종혁, 김현태, 이상욱, 김도진, 권중호(2011). CLA

- 섭취와 복합운동이 여대생의 신체구성, 사회적 체형불안 및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6(3), 299-310.
- 신현주(2011). 자기평가체형에 따른 중학생들의 사회적 체형불안과 정신건강.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경북.
- 신현주, 정연택, 류호상(2012). 자기평가체형과 체력수준 및 운동빈도가 중학생의 사회적 체형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4), 165-177.
- 양은심(2010). 여자무용수의 자기대상화와 신체불만족의 관계: 사회적체형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2(1). 107-117.
- 양은심, 김진아(2012). 댄스스포츠 선수들의 중도포기 측정도구 개발.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4(3), 95-107.
- 엄한주(2005). 설문조사지, 검사지 개발과 평가. 서울:21세기 교육사.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은주(2008). 청소년기 여학생의 사회적 체격불안 관련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2). 93-103.
- 이정은(2011). 사회인지이론을 적용한 대도시 20대 여성의 건강기능식품 섭취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종범 (2005). 초등학생 진로발달 검사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지영, 서보훈, 강성기(2012). 건강신념모형을 이용한 운동참여 측정도구 개발.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4(2), 51-60.
- 이진오, 강상조, 박찬호(2009). 사회적체형불안척도의 타당도. **한국측정평가학회지**, 11(2), 73-83.
- 임인재(1991). 심리측정의 원리. 서울: 교육출판사.
- 정용민, 정상훈(2011). 대학생의 지각된 신체상 불일치에 따른 신체불만족과 사회적 체형불안. **한국체육과학회지**, 20(5), 423-437.
- 정은주(2007). 무용전공에 따른 사회적 체형불안이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정철영 (2002). 농업 진로검사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4(4), 59-82.
- 정현희 (2006). 초등학생 환경소양 측정 도구의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천.
- 조정환(2002). 신체상 검사지의 구인 타당화.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4(1), 31-46.

- 천경민(2010). 여고생의 자기평가체형과 BMI에 따른 사회적 체형불안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9(2), 557-565.
- 최봉순, 홍진표(2000). 한·일 여대생의 자기 체형 인식 및 체형 불안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5(5), 435-442.
- 최선인(2003). 청소년의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최영준, 이동환, 오갑진(2003). 자기평가체형에 따른 사회적 체형불안과 신체적 자기 개념.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4), 51-61.
- 최윤선(2008).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문항반응 편파성 검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0(3), 91-106.
- 탁진국(1996).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탁진국(2010).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2판)**. 서울: 학지사.
- 한갑수(1998). 모의 친사회적 행동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사회적 불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홍선옥(1996). 운동참여가 신체적 자아효능감 발달과 성역할 특성변화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부산.
- 황규자(2009). 무용전공 대학생의 목표성향과 사회적 체형불안과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18(0), 1-16.
- 황윤영(2004). 비만 여대생의 체중저절 경험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4), 291-300.
- Anastasi, A., & Urbina, S. (1997). *Psychological Test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ndrich, D. (1978). Rating formulation for ordered response categories. *Psychometrika*, 43(4), 561-573.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
- Beidel, D. C., Turner, S. M., & Dancu, C. V. (1985). Physiological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2), 109-117.
- Brogden, H. E. (1969). Pattern, structure, and the interpretation of factors. *Psychological Bulletin*, 72(5), 375-378.

- Carver, C. S., & Scheier, M. F. (1986). Analyzing shyness: A specific application of broader self-regulatory principles. In W. H. Jones, S. M. Cheek, & S. R. Briggs(Eds.), *Shyness: Perspectives on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Plenum.
- Cash, T. F.(1990). The psychology of physical appearance: Aesthetics, attributes, and images. In Cash, T. F. & Pruzinsky, T.(Eds.),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51-79.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36(1), 211-221.
- Cratty, B. M. (1999). *Psychology in contemporary sport*.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 Crawford, S., & Eklund, R. C.(1994). Social physique anxiety, reasons for exercise, and attitudes toward exercise settings. *Journal Sport Exercise Psychology*, 16, 70-82.
- Crocker, L. M., & Algina, J. (1986). *Introduction to classical and modern test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Diehl, N. S., Johnson, C. E., Rogers, R. L., & Petrie, T. A. (1998). Social physique anxiety and disordered eating: What's the connection? *Addictive Behaviors*, 23(1), 1-6.
- Eklund, R. C., & Crawford, S. (1994). Active women, social physique anxiety, and exercis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6(4), 431-448.
- Eklund, R. C., Mack, D., & Hart, E. (1996). Factorial validity of the Social Physique Anxiety Scale for females. *Journal of Sport Exercise Psychology*, 18, 281-295.
- Gable, R., & Wolf, M. (1993). *Instrument Development in the Affective Domain*. Boston: Kluwer-Nijhoff.
- Gorsuch, R. L. (1983). *Factor analysi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 Harris, C. W., & Kaiser, H. F. (1964). Oblique factor analysis solutions by orthogonal transformations. *Psychometrika*, 29(4), 347-362.
- Hart, E. A., Leary, M. R., & Rejeski, W. J. (1989). The measurement of social physique anxiety.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1(1), 94-104.
- Hood, A. B., & Johnson, R. W. (1997). *Assessment in counseling : A guide to the user of psychological assessment procedures*.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 Beverly Hills, Calif.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Anxiety; self-presentation;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Linacre, J. M., & Wright, B. D. (1989). Mantel-Haenszel DIF and PROX are equivalent. *Rasch Measurement Transactions*, 3(2), 52-53
- Lunz, M. E., Wright, B. D., & Linacre, J. M. (1990). Measuring the impact of judge severity or examination scores. *Applied Measurement in Education*, 3(4), 331-345
- Martens, R., Vealey, R., & Burton, D, (Eds.)(1990). *Competitive anxiety in sport*. Champaign, IL : Human Kinetics.
- Martin, K. A., & Mack. D. (1996).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self-presentation and sport competition trait anxiety: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8, 75-82.
- Martin, K. A., Rejeski, W. J., Leary, M. R., McAulry, E., & Bane, S. (1997). Is social physique anxiety scale really multidimension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arguments for a unidimensional model.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9, 359-367
- McAuley, E., & Burman. G. (1993). The Social Physique anxiety scale: Construct validity in adolescent females. *Medicine, Science, Sports, and Exercise*, 25(9), 1049-1053
- Moses, N., Banilivy, M. M., & Lifshitz, F. (1989). Fear of obesity among adolescent girls. *Pediatrics*, 83(3), 393-398.
- Motl, R. W., & Conroy, D. E. (2000). Validity and factorial invariance of the social physique Anxiety Scale.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32(5), 1007-1017.
- Nunnally, J. C., & Bernstein. (1994). *Ira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NY, US: McGraw Hill.
- Ryckman, R, M., Robbins, M. A., Thornton, B., & Cantrell, P. (198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hysical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5), 891-900.
- Schlenker, B. R, g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669.
- Scott, L. A., Burke, K. L., Joyner, A. B., & Brand, J. S. (2004). Examining the stability of the 7-item social physique anxiety scale using a test-retest method.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Exercise Science, 8(2), 57-62.

Sullivan HS(1953). Affect theory. In: Approaches to Emotion. Ed by Scherer KR, and Ekman P, Hills-dale, Erlbaum, PP163-193.

Thompson, A. M. & Chad, K. E. (2002). The relationship of social physique to anxiety risk for developing an eating disorder in young femal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1(2), 183-189.

Thurstone, L L. (1947). *Multiple factor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lash, W. B., & Betz, N. E. (1995). *Tests and assessment*. Englewood Cliffs, NJ, US: Prentice-Hall.

Wright, B. D., & Chen, A. (1998). Many-faceted Rasch modeling expert judgment in test development.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al and Exercise Science*, 2(1), 21-39.

<ABSTRACT>

Development of a Female Undergraduate Social Physique Anxiety Scale

Kim, Hyunji

Physical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y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ocial Physique Anxieties Scal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which reflects the Korean unique trait and Korea cultures. The present study recruited the 1,035 female undergraduates in Seoul, Incheon, Gyeongnam, Jeonbuk, and Jeju province. The data from the 855 students were finally used for the analysis. 5 factors were extract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pen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s, and 58 preliminary items were verified. Through verifying the content validity of the 58 preliminary items and having an expert meeting these items were reduced into 30 items. The 300 female undergraduates completed the 30 preliminary items in the 1st preliminary study. The item analysis and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were conducted, the 30 preliminary items were reduced into 22 items. The 110 female undergraduates completed the 5 factors and the 22 preliminary items in the 2nd preliminary study.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nd conducted in the same analysing. Finally 3 factors and 16 preliminary items, the Social Physique Anxieties Scal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completed. The main study, the final 16 items, was conducted by the 130 female college students. After the main stud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validity verification and the reliability verification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final 16-item and 3-factor model represented an acceptable fit. The 3 factors were interpreted as 'the anxiety of others-evaluation', 'the anxiety of self-evaluation', and 'the anxiety related to clothes'.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mplemented to test the construct validity of a Social Physique Anxieties Scal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16-item and 3-factor model was fit into the data except the index of RMR and RMSEA. The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ies were also accepted, Cronbach's alphas were represented from .72 to .83., and the result of test-retest reliability revealed the stability of the scale based on the correlation $r=.83\sim.86$. However, the study focused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physique anxieties only for the female college students. Therefore, it has limitation for applying to other populations. The hereafter research needs to examine whether the scale will be acceptable to other ages or gender, and it should be examined the usefulness of the scale targeting various people.

부록1. 여대생의 사회적 체형불안 설문지

번호	문항	전혀그렇 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사람들이 내 몸매를 평가하는 것이 두렵다.					
2	나보다 날씬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위축된다.					
3	몸매를 가리는 옷을 자주 입는다.					
4	다른 사람과 몸매를 비교당하는 것이 두렵다.					
5	몸매가 좋은 사람을 보면 내 몸매에 자신이 없어진다.					
6	옷맵시(핏)가 나지 않을 때에는 나가기가 꺼려진다.					
7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몸매 관리를 못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된다.					
8	이성과 데이트 할 때 내 몸매에 신경이 쓰인다.					
9	옷을 살 때 내 치수를 말하기가 꺼려진다.					
10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11	연예인의 날씬한 몸매를 보면 내 몸매에 불만을 느낀다.					
12	노출이 있거나 몸에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염려된다.					
13	이성이 내 몸매를 매력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 걱정된다.					
14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를 보면 나와 비교되어 속상하다.					
15	원하는 옷이 신체 특정 부위에 꼭 낄 때에는 입고 나가기가 두렵다.					
16	주위 사람들이 나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할 때 예민해진다.					

부록2. 사회적 체형불안 설문지(Hart et al., 1989)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내 몸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걱정하지 않는다.					
2	나는 내가 입는 옷이 내 몸매를 어떻게 보이게 하든(여위게 혹은 뚱뚱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					
3	나는 내 몸매와 외모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4	나는 남들이 나의 체중과 체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생각 때문에 신경 쓰이는 때가 있다.					
5	나는 거울을 볼 때 내 몸매에 대해 기분 좋은 느낌을 받는다.					
6	나는 나의 매력 없는 몸매와 외모 때문에 모임에서 불안할 때가 있다.					
7	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내 몸매와 외모에 대해 신경 쓰게 된다.					
8	나는 내 몸이 남에게 얼마나 건강하게 보일까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					
9	나는 남들이 내 몸매와 외모를 평가한다는 것을 알면 불안해 질 것 같다.					
10	나는 수줍음을 타고 다른 사람이 내 몸을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1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몸을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편안한 느낌을 갖는다.					
12	나는 속옷을 입었을 때 나의 체형에 대해 걱정스러운 생각을 한다.					